

12
2021
10
+ 0
176
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커버스토리



- 1 <Limpid_새벽산수 센터피스> 유리에 옷칠 | 200×220mm | 2021
- 2 <Ritual Objet_VASE+황금빛대지>
봉규산유리에 옷칠, 순금 | 190×190~280mm | 2019
- 3 <Limpid_한여름 제주바다 컵> 유리에 옷칠 | 55×135mm | 2020

1



2



3



이달의 표지 작가



작가 강정은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현대 인류의 습관과 관련된 기원을 다루는 재료와 문화 연구에 집중하는 Studio VONZ를 운영하며, 디자인과 예술 작업을 하고 있다. <TRACE>(Onyou gallery, 2021) <CRAFT KIOSK>(Cociety, 2020) 등의 단체전과 '2020 공예트렌드페어' '디자인페어' 'Cluster Crafts Fair'(London) 등에 참가했다. '2020 우수 공예품' '2019 Good Design' 등에 선정됐으며, 현재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12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 잊히고, 익숙하지 않은 전통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며 현재와 과거, 새것과 옛것의 소통을 도모한다. 새로운 재료와 전통적 재료의 조합은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옛 재료와 기술, 현대 재료와 기술을 조합해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여 전통 공예와 현대적 생활 방식의 격차를 좁히는 일을 목표로 한다.

색상·질감과 같은 물질성에 대해 관심이 깊다. 현재는 전통 옷칠의 다양한 텍스처, 그리고 우리의 투명하고 반사되는 특성의 대비를 구현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를 반영한 <Ritual Object> 시리즈는 미흡했던 가야 시대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면서 알려지고 있는 가야 시대의 풍요로운 이야기를 현대에 쓰이는 기물에 담았다. <Limpid>는 마음의 평안을 준 한국의 풍경을 투명하게 옷칠해 담은 조각들이 중첩되는 방식으로 옷칠의 농담濃淡을 유리 위에 표현한 시리즈다.

나의 모든 작품과 해석은 내 손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조각은 한국에 있는 소규모 작업장과 전문 엔지니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성된다. 한국 전통 예술의 가치를 공예품에 자연스럽게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고, 깊이 있는 여운과 삶의 풍요로움을 전하고자 한다.

Contents

2021 10 Vol. 176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강정은

테마 토크

처음 만나는 예술청

06 칼럼 공존과 상생을 위한 허브, 예술청

08 리포트 예술청이 꾸려갈 사업

12 현장스케치 예술청 탐방

14 인터뷰 건축가 김준성

16 스낵 1기 공동운영단의 목소리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소설가 박상영

24 작가의 방 김인현 예술감독·박세은 무용수

26 서울 찰나

28 진실 혹은 대담 부모 예술가와 함께하는 유아 예술 프로젝트
〈일상과 예술의 만남〉 결과 공유 좌담회

이슈 & 토픽

34 쟁점 '시 장편소설'이 던진 물음표

36 화제 1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38 화제 2 문화예술과 플랫폼의 결합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용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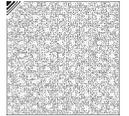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누리집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공간, 공감

- 40 공간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 42 공감 1
전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과 <PARK SEO-BO>
- 44 공감 2 책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과 <똑똑하게 생존하기>

SOUL OF SEOUL

- 46 서울 산책 젊음과 향수가 어우러진 후암동
- 48 정지우의 썰(說) 덕후 문화 탐방
- 50 서울 건축 읽기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 명패에 깃든 시간의 흔적
-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

WEBZINE+

- 56 웹진 [비유] 엄마를 바라보는 엄마
- 58 웹진 [연극in] 배리어프리 특집호 제작 일지
- 60 웹진 [춤:in] 이광석 무용가
- 62 10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68 편집 후기



테마 토크





대학로에 부는 변화의 바람

처음 만나는 예술청

옛 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한 서울문화재단대학로 내 자리 잡은 예술청이 10월 27일 개관한다.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스스럼없이 찾아와, 상상하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펼칠 수 있는 예술청 시대의 시작으로 과거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대학로에 새로운 문화 지형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을 앞두고 공모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예술청 사업들을 살펴보고, 1층 마당으로 들어가 지하 공공극장에서부터 6층 스카이라운지까지 올라가 본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의사결정과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1기 예술청 공동운영단 20인의 예술청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들어본다.

공존과
상생을 위한 허브,
예술청

대학로에서 시작되는 예술청 개관의 의미는 공존과 상생에 있다. 다양한 세대와 각자의 예술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모여 서로를 응원하며 연대하고, 예술계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면서 예술 환경을 성장시키며, 대학로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민간과 공공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연결망으로 협력함으로써, 예술로 다시 살아 숨 쉬는 대학로를 꿈꿔 본다.

예술로
다시 살아 숨 쉬는
대학로를 위한
새로운 시작



한 지붕 세 가족-서울문화재단, 공공극장, 예술청

예술청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해 청사 이전과 함께 일부 공간을 예술인 공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1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Housing 2 예술인 활동 기회 Opportunity 3 장애 없는 창작 활동 촉진 Promotion 4 예술인 성장과 발전 Education & Exchange 5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 Sustainability을 의제로 한 예술인 종합지원계획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했고, 재단은 그중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 조성의 중심축이 될 예술청 건립을 위한 장소를 검토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말, 동숭아트센터 위치에 들어설 서울문화재단대학로 내에 예술청 조성이 확정됐다. 이어 2009년부터 재단이 공공극장으로 위탁 운영하던 남산예술센터의 계약이 2020년 종료되면서 재단 극장운영단은 동숭아트센터 지하를 리모델링해 2022년 개관할 블랙박스 극장을 맡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문화재단대학로에는 재단 4개 본부·단(문화시민본부·예술교육본부·극장운영단·예술청운영단)과 공공극장·예술청의 기능이 공존하는 현재의 형태가 됐다.

거버넌스 기반의 연결, 연대, 확장 플랫폼

예술청은 초기 설계부터 민과 관의 협치, 즉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운영 체계를 최우선에 뒀다. 2018년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예술계 전문가 간담회·좌담회를 비롯한 공론 자리를 이어갔고, 2019년부터는 현장 예술인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주축으로 공모를 통해 모인 예술인들과 (구)동숭아트센터에서 예술청의 미래를 상상하며 청사진을 그렸다. 2020년에는 100여 명의 현장 예술인과 함께 실험적 아트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창작 플랫폼, 점진적 연결망 증폭기, 운영모델 수립 워킹그룹을 구성해 확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예술청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과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예술청 공동운영단 공모가 진행됐고, 공동예술청장 2인과 운영위원 9인이 선정됐다. 여기에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운영단의 당연직 예술청장 1인과 예술청팀 8인까지 총 20인의 1기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꾸려졌다. 다양한 세대가 모였으며 각 예술 장르에서 활동하는 여러 예술인이 결합해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로는 과거 성균관대학교·경성제국대학·국립서울대학이 설립돼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중심이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이전하며 공공문화정책의 중심지가 되고, 미술관·문예회관·민간 소극장이 모이면서 민과 관의 예술 관련 주요 인프라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발전하

기 시작했다. 1979년 아르코미술관을 시작으로 1981년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1984년 샘터 파랑새극장, 1986년 바탕골소극장, 1987년 연주소극장, 1989년 동숭아트센터, 1994년 동숭시네마테크, 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07년 서울연극센터, 2009년 대하로예술극장, 2012년 예술인복지재단, 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등 민간과 공공 문화시설·기관이 줄지어 들어섰다. 2004년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 대학(동덕·홍익·상명대)과 대기업(CJ·롯데·YES24) 진출로 극장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나날이 상승하는 임차료를 감당하기 힘든 극장들이 문을 닫아 소극장 육성은 실패했다. 예술인들은 대학로를 떠나 성북·마포·문래동 등에 '오프 대학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200여 개의 소극장이 운영되면서 연극의 메카로 불리던 대학로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 됐다. 극장과 예술인들이 떠난 텅 빈 현재 대학로를 보면 과거 예술인으로 넘쳐나던 활기찬 대학로 분위기를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대학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1년 10월, 예술청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서울문화재단 블랙박스 공공(가칭) 개관과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한성대입구역에 조성하고 있는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로를 곳곳이 지킨 민간 소극장과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시설과 더불어 예술청 개관을 계기로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벨트가 형성되길 바란다. 대학로에 새로운 문화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공존과 협력, 상생을 위한 허브로서의 예술청

재단·공공극장·예술청의 유례없는 한 지붕 세 가족의 동거, 민·관 협치가 기반인 예술청의 운영 체계, 그리고 대학로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민간과 공공의 새로운 문화예술벨트는 공존과 상생의 실험이기도 하다.

아마도 서로가 적응하고 공존·상생의 방식을 찾기까지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예술가, 예술 매개자, 예술 관계자와 행정가, 시민(향유자)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만남은 서로를 가로막는 벽을 없애고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에너지로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대학로에 형성되는 문화예술벨트의 한 축으로서 예술청이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술 생태계의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공존과 협력, 상생의 허브로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서령 예술청 공동예술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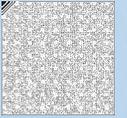
예술청이 꾸려갈 사업

예술청 사업은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 운영위원과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예술청팀의 공동 기획과 협업으로 만들어진다. 총 20인 규모의 공동운영단 전원이 참여해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기획, 예산 편성, 실행까지 전 과정에 함께한다. 이는 사업의 내용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민관의 협업 과정 즉,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예술 현장과 행정의 결합, 그 비효율과 효율의 산출물

사업 영역은 크게 공론화, 매개, 복지·권익, 창작기반 조성, 연구, 다섯 영역으로 나뉜다. 주요 추진 목적은 네 가지다. **1**예술계 주요 담론 발굴, 공론화, 주체 간 연결을 도모하는 예술 플랫폼 조성 **2**예술 현장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창작 실험, 교육, 상담, 네트워킹 촉진 **3**시민(향유자) 대상 다양한 형태의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플랫폼 조성 **4**기존 예술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대상 실질적 지원.

예술청 공동운영단은 지난 4월 5일부터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고, 9월 15일자로 그간 준비한 사업의 모집 공고를 냈다.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예술청의 정체성(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연결, 연대, 확장 플랫폼)과 핵심 가치(평등과 안전, 시도와 모험, 자율과 책임, 공존과 상생)에 기반한다. 그 의미와 맥락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었다. 이제 윤곽을 드러낸 예술청의 따끈따끈한 7개 분야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공공서비스센터



예술청 예술거래소는 예술인과 예술인, 예술인과 향유자 간 이뤄지는 예술 거래와 다층적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 아트마켓-예술거래소’는 예술인들의 예술적 시도와 협업, 예술 거래를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이다. 예술인과 예술인, 예술인과 향유자 간 교환과 나눔이 가능하도록 예술 거래 기반의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별도의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거래 제안자(예술인) 100인(팀)내외의 소개·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받으며, 온라인(비대면)으로 12월까지 활동한다.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무형의 예술 콘텐츠를 거래하는 예술거래소 사업은 11월에 오프라인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예술청 살롱(예술청 연결망)은 예술가와 예술가의 연결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예술 생태계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술 현장의 지식·경험 등을 공유하는 예술인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나아가 시민과 매개해 문화예술 현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① **모험적예술력공유기** 예술 현장의 다양한 변화를 함께 읽는 동시에 예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살롱이다. 반 발짝 더 나아가 먼저 고민하고 시도해 자기만의 ‘전환’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사전 섭외된 강연자와 발표자의 주제에 따른 총 12회 살롱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 ② **점진적연결망증폭기** 예술을 매개로 점진적으로 증폭하는 ‘연결망’을 만드는 사업이다. 동료 예술인과의 만남과 협력 과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예술 생태계 내 상호 협력의 기회를 확장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 13회 내외의 예술인 간 네트워킹 모임과 프로젝트 발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동운영단의 추천과 발굴 과정을 거쳐 참여 예술인이 구성된다.
- ③ **예술청모꼬지** 예술인의 기술·예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예술 생태계 내 다채로운 네트워크를 기대하며 만든 소모임·워크숍 프로그램이다. 모꼬지는 놀이나 잔치 등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한다. 예술 매개자·예술인·향유자 등이 모여 10~12월 중 여성·기후·식물·창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유하고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④ **예술가의 식탁** 서울문화재단대학로 6층에 조성된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공유 주방에서 이뤄지는 예술인 호스트 교류 사업이다.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교류의 장으로서 작은 파티, 소규모 공연 등을 개최해 모두가 편안하게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2층 예술청 아고라 공간에서 예술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눈다.

예술청 아고라는 거버넌스 기반의 ‘공론 플랫폼’으로 예술 현장의 목소리와 생각이 모이는 공론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유닛 아고라’, 개인 단위의 공론화 모임(3~5인, 60유닛 구성)을 구성해 문화예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문제의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다. 공모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유닛 아고라에 모인 이야기는 온·오프라인 공론장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논의되며, 주요 의제는 12월 개최하는 ‘예술청 아고라 공론 포럼’에서 다룬다.

예술인 통합 상담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이 일상에서 당면하는 법률·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인 종합 법률 상담과 예술인 통합 정보 지원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연계해 사회 안전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예술인 종합 법률상담센터는 각종 법률 상담(계약·저작권·지적재산권·고용보험·공정거래 등), 성폭력·위계폭력 관련 상담, 심리 상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예술인 통합 정보 지원은 창작·발표 지원, 일자리·역량 강화, 정책·제도, 생활 지원, 분야별 정보 취합과 재분류 등 예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원한다. 예술인의 주요 당면 이슈 관련 상담 창구가 중앙부처 소속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술청 창작소는 예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창작기반 조성사업으로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이 자유롭게 시도하고 실험하도록 지지하고 지원한다.

① **예술인이 시작을 대하는 가지가지 활동** 코로나19로 멈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법·주제·장르 등으로 시작하는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일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창작 활동도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건당 100만 원(사상금) 정책 지급하고, 150건 내외를 공모·선정해 지원한다.

② **팅·빈·곳 새집의 모양** 새롭게 개관하는 예술청 공간을 예술인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해석·제안하는 창작실험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다. 예술인의 새집이 될 예술청은 예술인을 통해 그 형태가 점차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15건 내외의 프로젝트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③ **1 Stage for 1 Player** 공연예술 실연자에 대한 집중 조명사업으로 실연자 개인으로서의 존재감과 개성을 드러내는 사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공모 대상을 다양한 예술 장르로 확대할 예정이다. 1인 실연자를 대상으로 50여 건 내외를 공모·선정한다.

④ **BOOK'N ROLL** 책을 매개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BOOK'N ROLL에선 예술인과 책이 건네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서울문화재단대학로 2층 내에 조성된 서가를 활용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선정한 책으로 꾸릴 'S.A.P Collection'과 공모에 참여한 예술인의 추천 도서 등으로 서가를 구성한다. 참여한 예술인에게는 초청료를 포함해 도서를 매개로 한 활동을 지원한다.

예술청 아카데미는 예술인의 사회적 활동 역량 강화와 더불어 예술 현장의 안전을 위해 예술인 복지·권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계 내 인권, 노동권, 사회적 이슈와 같은 주제를 기존 제도권 교육이나 예술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예술 안전망 학교·마주 서는 예술'은 예술인의 자력화와 안전한 예술 환경 구축을 위한 강연·워크숍 프로그램이다. "고유한 '내가 '나'로 존재하며 나를 표현하기 위해 무엇이, 왜 필요한지" "예술인으로 살고, 창작하고, 노동하는 것은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나'의 삶과 문화예술 공동체의 현안을 잇는다. 자유롭게 안전한 예술살이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다. 4개 반별 각 20명 규모로 총 80명의 수강생

을 공모하며 10~12월까지 8회차 강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강생별 개인 활동(발제·발표 등) 참여와 수강 완료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예술청 연구소는 예술인 특화 사업 및 복지 서비스의 필수 요소와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 설계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1인 가구 예술인 복지권의 관련 실태조사(가제)와 서울 문화예술 거버넌스 운영·평가 모델(가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사회복지 정책연구와 예술분야 복지 연구 내 1인 가구라는 환경적 요인과 창작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질적 복지사업 설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거버넌스 평가 모델은 거버넌스 체계의 실효성, 구조적 분석, 향후 발전·확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사업 소개를 마치며

예술청은 다양한 기획 사업 외 공간을 활용한 대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문화재단대학로 1·2·5층 일부를 예술청 전용 공간으로 조성했다. 예술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2층 예술청 아트라운지와 제로라운지, 그리고 예술청 멤버십 가입 예술인이 사용할 2층 예술청 아고라, 미팅룸 1·2, 5층 프로젝트룸 등은 정기·수시로 무료 대관한다. 2021년 10월 27일 개관 이후 연말까지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하고는 시범 대관 운영할 예정이며, 예술청 멤버십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예술인 누구나 상시 가입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공론화·매개·복지·권익·창작기반 조성·연구 그리고 공간 대관과 멤버십 등 예술청의 다양한 사업이 완전히 새롭거나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사업이 생길지 모른다. 사업 자체의 특성이나 차별화도 중요하겠지만, 예술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현장 예술인과 문화 행정이 전격적으로 결합해 산출물을 낸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거버넌스 과정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소통의 에너지와 시간은 예술청 사업의 주춧돌이 될 것이고, 중요한 자양분으로 쌓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예술 생태계에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고민은 계속된다. 공공 시스템 참여를 통해 예술인들의 자존감은 유지·회복될 수 있을까? 현재의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 또한 예술청은 향후 어떤 사업을 추구해야 할까? 예술인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글 **여인혁, 장재환** 예술청 공동예술청장 | 사진 **서울문화재단**



아트라운지, 제로라운지, 아고라, 미팅룸 1·2, 오피스

예술가의, 예술가에 의한, 예술가를 위한 장소

2층은 넓이 977.20m²의 공간이 다섯 구획으로 나뉜 곳이다. 이곳을 찾는 예술가는 용도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예술가의 휴게실로 사용될 '제로라운지'에는 1,800권 정도의 책으로 가득 채워질 서가가 눈에 띈다. 일부 서가는 예술가가 추천하는 책을 큐레이션하는 '예술가의 서적'으로 꾸밀 예정이고, 이에 맞춰 작은 북토크도 준비하고 있다. 동료와 함께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카페형 공유 오피스 '아트라운지'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고라'에 모여 강연이나 토론 형식으로 예술계에 필요한 의견을 나눈다. '미팅룸 1·2'는 소모임 공간이며, '오피스'는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회의용으로도 쓰는 사무 공간이다. 장재환 공동예술청장은 2층이 아마도 예술청을 방문하는 예술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곳이라고 말했다. 2층은 예술가 또는 예술청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술청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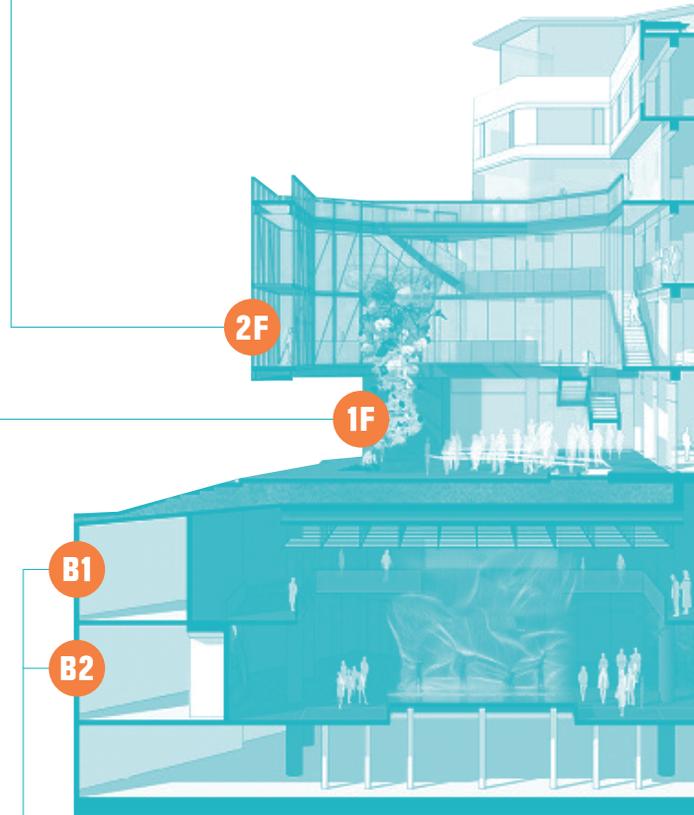
이야기가 모이는 곳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던 대학로 대표 공연장 동숭아트센터가 문화예술 공간 서울문화재단대학로로 새롭게 조성됐다. 예술청은 그중 1·2·5·6층을 사용하며, 3년간의 준비 끝에 10월 27일에 정식으로 개관한다. 예술청이 들어선 서울문화재단대학로 공간을 구경해 보자.

야외 스퀘어, 올라운지

바깥에서 예술로 떠들기

1층 바깥마당에서부터 예술청의 예술 행위는 시작된다. 건물 형태는 마치 공연장의 객석이 마당을 에워싼 모양이라 일반 시민은 원하는 곳에 서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예술가가 원하면 마당은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으로 변하거나, 작품이 판매되는 아트마켓 형태로 바뀐다. 이러한 공간의 가변성은 실내로 이어진다. 실내와 마당 사이에 접고 펴는 문이 있어 언제라도 완전히 개방 가능하고, 빨간 등받이가 인상적인 독특한 가구는 의자에서 전통 평상으로 변신한다. 이 다목적용 가구는 신당창작아카데미 11기 입주작가로 활동한 김현정 작가의 작품이다. 실내 좌우에는 대형 미디어 벽면을 구성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블랙박스 공공(가칭)

(구)동숭아트센터 공연장 동숭홀을 리모델링한 블랙박스 가변형 공공극장. 2022년 6월 사전 개관 예정. 면적 3,294.46m².



스카이라운지

수고했어, 오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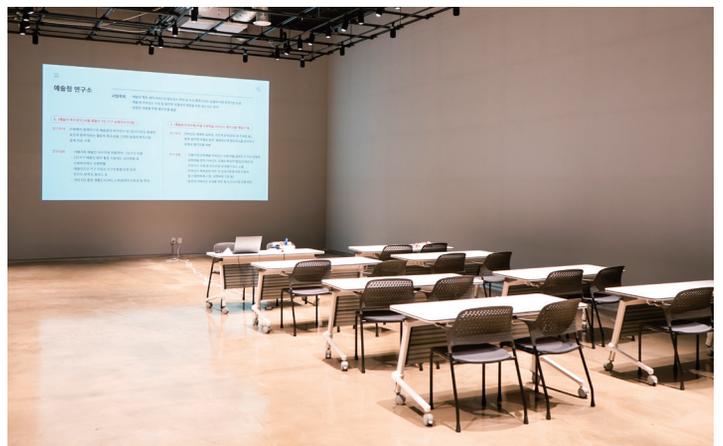
6층 스카이라운지는 누구나 실 수 있고, 문화 행사가 열리는 야외극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예술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든 공유 주방이 한쪽에 설치된 점이다. 아래층에서 일과나 공연을 끝낸 후 모두가 모여(물론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눠 먹으며 가지지 않은 여흥을 붙잡을 곳이다. 공연 관람 후 예술가가 관객에게 요리를 대접한다면? 팬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혹은 관객이 땀 흘린 예술가에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취재 당시에는 없었지만 냉장고 안에서 시원한 맥주를 꺼내 마시며 풍경 감상하기 딱 좋은 곳이다. 예술청 부근의 대학로 거리와 멀리 보이는 N서울타워까지 서울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해 보자.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예술가의 식탁'을 실행해 모두가 음식을 먹으며 북적대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프로젝트룸, 다목적공간, 무대연습실

극장에서 다용도 예술 공간으로

5층은 이전 동숭아트센터의 동숭소극장이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해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시각예술·모임 등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룸'으로 만들었다. 천장이 높은 이곳의 장점을 살려 예술가가 상상한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펼치는 공간이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무대연습실'과 '다목적공간'도 있다. 기다란 거울이 갖춰진 '무대연습실'은 예술가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땀 흘릴 곳이기도 사워실을 마련했고, '다목적공간'은 이름 그대로 강의나 워크숍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사무실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운영단·문화시민본부·예술교육본부·극장 운영단. 직원 업무 공간. 면적 3층 767.87m², 4층 760.08m².

예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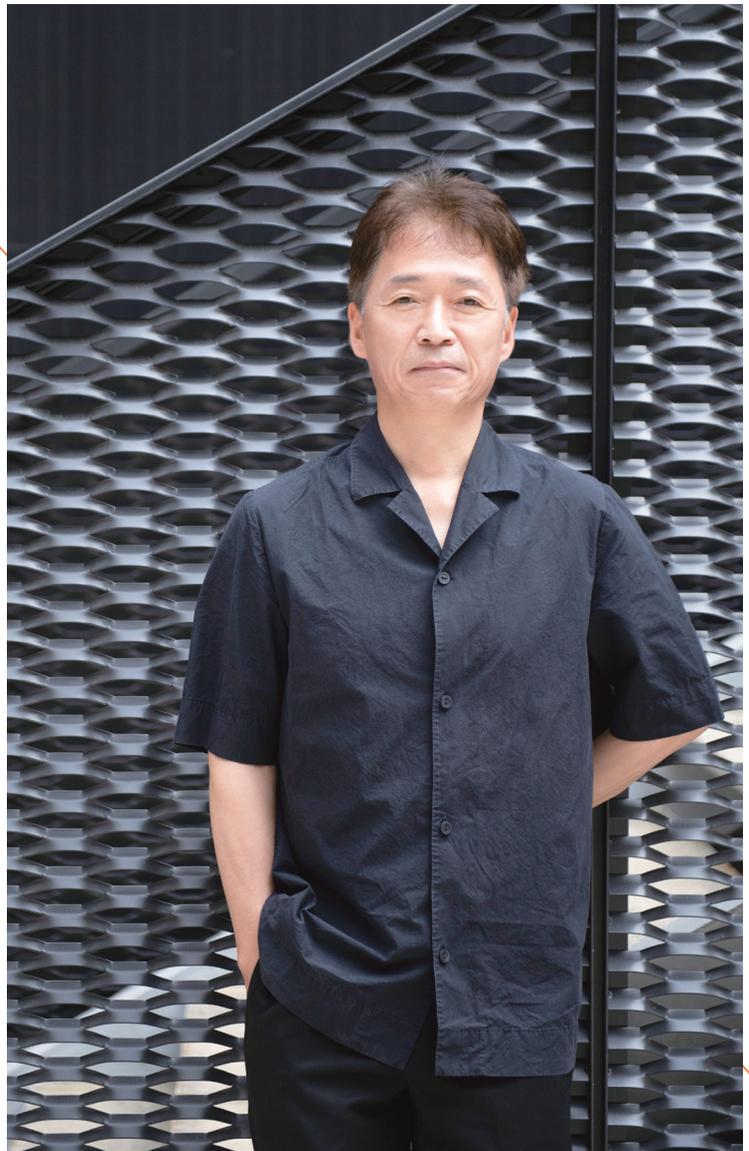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문의 02-758-2178
인스타그램 @sap_artists

원래 있던 공간을 재발견하다

건축가 김준성

김준성은 브라질 상파울로 마켄지 대학교 도시·건축대학,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건축대학을 졸업했다. 뉴욕 'Mayers & Schiff'와 포르투갈 포르투 '알바로 시자'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1991년 국내에서 자신의 사무소를 개소했다. 2000년 헤이리 예술마을 건축 코디네이터를 맡았고, 2006년 '핸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를 설립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로 있다.

건축가 김준성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주변 분위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가 동숭동을 대표하던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공모(2018)에 선정돼 동숭아트센터를 현재의 서울문화재단대학로로 탈바꿈시켰다. 직접 설계한 공간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핸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hAND+Architects**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문화재단대학로 리모델링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 예전에는 제가 주로 외국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건물도 지었어요. 동숭아트센터가 1989년에 개관하고 2년 후인 1991년에 서울에 들어왔을 때, 당시 동숭동을 대표하는 건물이니 찾아와 봤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건축가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습을 머릿속에서 설계했죠. 제대로 계획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 흘러 2018년에 리모델링 공모 사실을 알고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응모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생각했나요?**

▲ 첫 방문 당시에 제가 상상한 동숭아트센터는 마당도 있고 여러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공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과 달랐죠. 마당은 이번 건축의 핵심 구성입니다. 설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파운드 스페이스 Found Space인데요. 연극극장에서 쓰는 건축용어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원래 있는 공간을 찾았다는 개념이에요. 많이 쓰는 공연장 말고, 지하 기계실·복도·마당에서 공연하면 그곳이 곧 극장이 되는 거죠. 정해진 극장에서만 공연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이든. 특히 이곳은 마당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예술 행위를 벌이든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관객도 열린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당 주위를 빙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죠. 2층에서도 바깥마당을 내려다보도록 문을 활짝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마당에서 연극을 하거나 행사가 열리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형태예요. 가장 큰 행사는 마당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 연계되지 않을까요.

📍 **(구)동숭아트센터에서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새롭게 구성하셨나요?**

▲ 저희는 많이 남기고 싶었어요. 마당과 관련된 초입 정도만 바꾸고 되도 록이면 옛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수하는 행위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으니까 보수하는 거예요. 그 '있음'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시간의 때를 재생할 수 없잖아요. 너무 소중한 가치라 저희도 그것은 지키고 싶었죠. 건물을 자세히 보면 1층과 2층, 3층의 일부만 바뀌었고, 이외는 원래 모습대로 있어요. 창호는 너무 옛것이라 단열이 안 되니까 옛날 모양만 갖추면서 고쳤고, 1층 마당 정도만 대수선을 했죠. 지금 와서 보니까 군데군데 더 살릴 부분이 보여서 아쉽네요.



서울문화재단대학로 초기 설계도

📍 **공간 작업에 직접 참여한 입장에서 서울문화재단대학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물이 되길 바라나요?**

▲ 대학로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어요. 새로이 스타트업을 꾸리거나 실험적 공연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까 말한 파운드 스페이스와 맥락이 맞아요. 잘 기획된 공연도 물론 좋지만,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리 선보일 수 있는 공연을 서울문화재단 건물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객에게는 “이 장소에 가봤어”라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건물에 대한 기억보다 장소에 대한 기억이라 할까요. 낮이든 밤이든 이곳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경험하면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될 것 같아요.

📍 **일반 시민, 예술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편하게 즐기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짧은 예술가에게는 어떤 경계가 있어서 항상 마루 위로 올라가는 데 몇 년이 걸린다고들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달라졌으니까, 경계를 없애고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열린 곳이 되길 바라요. 예술청 공동운영단에서도 이 건물을 그렇게 운영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추가로 건축가 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건축 입찰을 진행해 꾸미는 설치 작업이 있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뿔려 있는 천장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추가 작업하기 알맞은 건물이거든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상상을 하면서 설계했기 때문에 뭐든 꾸미기가 용이해요. 정식으로 개관하고 여러 행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씩 자리매김하겠죠. 실사용자들이 잘할 겁니다.

글 장영수 객원 기자 | 사진 공간노루 | 사진 제공 핸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

01 김건희

예술청은 예술인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다.

02 김서령

예술청은 꿈과 삶과 마음을 나누는 예술인의 아지트이다. 예술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만남·소통·성장·상생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 확장성 있는 연대와 응원의 울타리.

03 김영호

서울의 예술 생태계는 이제 예술청 존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예술인' '예술 생태계'에서 존재 가치에 대해 지지받고 사랑받는 예술청.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

04 김지영

예술청은 '예술'이 모여들 '광장'이다.

05 박무림

채워지지 않는 욕망, 희미해지는 외부와의 관계, 상실된 몇몇 퍼즐 조각 때문에 정체된 예술 현실 등을 해결할 필요를 찾아 헤매는 예술가들이 스스로없이 찾아와 교류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가볍게 선택하지만 믿고 즐길 수 있는 길거리 음식처럼 잠시의 휴식과 잠재한 가능성을 점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한다.

06 박슬기

예술청은 '누군가의 것'이 아닌 예술인 모두의 것이다. 그것을 가장 기대한다. 특정 예술인이 점령한 상황이 가장 두렵고 염려된다. 정말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유롭게 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 볼로야

'수행성'이다. 과정을 기다리는 장소면 좋겠다.

08 서동진

익숙함을 버리고 새것을 시도할 때 늘 용기와 노고가 따른다. 덕분에 예술청은 예술인을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갖췄다. 예술인이 기획한 예술청이 문화예술 지원 방식의 본초이 되길 바란다.

09 서상혁

예술청은 '지구'이다. 지구 생태계 모든 존재와 자연이 상호 영향 관계에 있듯, 모든 예술인의 다양한 의지가 만남과 실천 그리고 기억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다만, 이때 상호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

10 양정훈

예술청은 '제기랄, 그럼에도'이다. 모두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에도 그의 예술과 자신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다음을 향해.

예술청을 향한 사려

1기 공동운영단의 목소리

예술청 공동운영단 20인에게 “예술청이 무엇이나” 물었다. 이들은 거듭 고민한 끝에 건져낸 각자의 ‘예술청’에 대한 견해를 짧은 문장에 담았다. 예술청의 운영 방식대로 예술을 존중하는 한명 한명의 목소리가 돋보이도록 정리해 지면에 옮긴다.



예술청 공동운영단의 회의 장면

11 ————— **여인혁**

예술청은 뿌듯함이다. 왕성히 활동하는, 그리고 잠시 호흡을 고르는 예술인들이 예술청을 통해 만나고, 기분을 전환하고, 흥미를 느끼는 작업을 발견하며 작은 뿌듯함을 얻는다면 좋겠다.

12 ————— **오희정**

어리지만 용감한 아이이다. 완벽한 정답은 모르지만 계속 찾고 있다. 예술인 한명 한명에게 자기 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용기를 북돋고 그 과정에서 서 조금씩 커져가는 우주를 발견하면 좋겠다.

13 ————— **유모라**

예술청은 갑자기 생긴 곳이 아니다. 예술 현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의 활동과 마음을 모아 예술청이라는 기회를 만들었다. 소중한 기회를 현장에 도움 되도록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다.

14 ————— **윤서비**

예술청은 예술가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예술 관련 플랫폼이 다다를 투명함과 알뜰함과 대법함의 최대치를 실험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다.

15 ————— **이대욱**

예술청은 로맨티스트이자 리얼리스트이다. 예술청은 조성·준비 기간을 거치고 정식 개관을 앞뒀다. 예술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장 예술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이를 사업과 정책으로 끊임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력도 가져야 한다. 주어진 자원과 시간 내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6 ————— **이유진**

예술청은 시작이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작이고, 다양한 예술인과의 만남·이야기·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17 ————— **이하늘**

예술청은 이제 시작이다.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예술청 공동운영단 20인의 긴 회의와 지난한 논의 과정은 생각의 차이와 틈 사이를 발견하거나, 혹은 구별하거나, 또는 좁혀가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과정이었다. 예술청의 처음이 현장 예술인에게 온전히 다가가기 바란다.

18 ————— **장석류**

동승동에 위치한 예술청이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계 종사자가 느슨하게 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장소'가 됐으면 한다. 이곳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길!

19 ————— **장재환**

예술청은 속도가 다른 두 개의 엔진을 달고 망망대해로 출항한 여행선이다. 각각각색의 예술인이 다양한 모습으로 탑승했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가야만 하는, 때로는 거친 풍랑도 만나고 잔잔한 물결도 있겠지만 멈추지 않고 가야만 하는. 마주보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너'와 '나'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의 행복한 유람선이 되기를...

20 ————— **황유택**

예술청은 모든 가능성이 순환하는 곳이자 예술과 예술인의 쉼과 탄성이 무량하게 확장하는 곳이다.

정리 장영수 객원 기자 | 사진 서울문화재단

사람과 사람

문화인





단어의
온전한 무게와
온도를 되찾다

소설가 박상영

박상영의 소설은 언제나 너무 가벼워진 단어들로 자신의 무게감을 되찾게 만든다. 연작소설집《대도시의 사랑법》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편소설집《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에서는 예술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제 무게를 찾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박상영의 소설이 그 무게감을 위해 굳이 엄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소설은 오히려 유머와 말장난, 빈틈없이 주고받는 대사로 가득하다. 그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지만 이번엔 독자로서 묻고 싶은 게 가득했다.

꼭 쓰고 싶던 이야기

10월에 출간하는 박상영의 첫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는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만 요약할 수 있을까? 소설에 비해 너무 가벼운 요약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다가 알아차렸다. 필자 스스로가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음을. ‘청소년’을 단순한 우울과 무한한 기쁨으로 대치하고 있음을.

언젠가 청소년기의 명암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번째 장편소설은 반드시 10대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짚 해왔습니다.

필자의 10대는 분명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무한한 우울과 단순한 기쁨만이 가득했던 시기였는데도, 그럼에도, 어느 순간 잊고 있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지난 두 권의 책이 필요했다고 할 만큼, 저에게는 작가가 되고 나서부터 쓰고 싶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의아한 기분이 드는데요. 제게는 암흑 같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시기의 명암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번째 장편소설은 반드시 10대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짚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박상영 소설가는 2016년 소설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로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며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로 젊은



작가상을, 2019년엔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으로 젊은작가상 대상상을, 같은 해에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로 허균문학상을 받았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는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신동엽문학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니 등단 후 정말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를 써왔지만 이제야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니. 그토록 오래 묵힌 이야기인 만큼 왜 10대 청소년의 이야기여야만 했는지가 더욱 궁금해졌다. 박상영 소설가에게 청소년기엔 어떤 아이였는지 스스로를 묘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표지

“평범한 아이였어요. 남 웃기는 걸 좋아하고 날씬한(강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 결석이나 지각은 정규 교과과정 1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잠도 없는 편이었어요. 무조건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애 있죠? 수업 시간에도 안 졸고요. 수업 시간을 충실히 보내서인지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범생. 아, 고3 때 처음으로 가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작정 포항에 있는 민박집에서 하루 자고 돌아왔죠. 그때 할 것도 없어서 혼자 영화를 보면서 올던 기억이 나요. 또 사람들 앞에선 잘 웃고 놀고는 싸이월드엔 매일 우울한 이야기만 줄곧 썼어요. 집에선 우울한 음악을 틀어놓고 채팅을 엄청 했는데 세이클럽 타키·msn·네이트온 등 온갖 메신저를 다 켜고 친구들과 대화하느라 정신없었죠.”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빨려 들어갔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 각종 메신저, 캔모아, 《호텔 아프리카》를 비롯한 순정만화들은 《1차원이 되고 싶어》속에서도 청소년의 감정적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박상영 소설가는 1988년생으로, 2000년대 초반을 관통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에게 2000년대 초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한국의 2000년대를 응시하다

“한국의 2000년대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굉장한 격동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고, 그 여파를 온몸으로 겪은 아이들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자신이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런 첫걸음을 내디디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 배경이 지금 사회에 진출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 정신문화의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왜 그렇게 불안했고, 또 경쟁으로 내몰리면서도 그 모든 야만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불어 그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02년 월드컵을 꼽았다. 2002년 월드컵 중 16강전을 치르던 날은 《1차원이 되고 싶어》소설의 주인공이 사랑의 대상인 윤도를 처음 만나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면서 그전까지 져서 있던 어떤 패배감을 회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정치적 의제에서나 여러 사회적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서 더욱더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결정짓는 많은 부분, 이른바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족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많은 계기가 2002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 소설의 시작점으로 잡았고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2002년을 더욱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흔히들 2002년 월드컵을 4강까지 진출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월드컵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자부심을 지니게 된, 선진국으로 향하는 축포를 알리는 계기의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전까지의 경제 발전 단계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발전을 지향하게 된 계기로 2002년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0대에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꿈꿔 왔던 발전도 이뤘지만 동시에 정신문화적으로는 더 퇴보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생각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이번 소설을 썼고, 그때의 문제를 되짚어 보며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격동 속에서 열정적으로 문제를 헤치면서 온 현주소가 과연 올바른 곳인지에 대한 의문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소설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펼쳐 봤다. 과연 그의 말대로 뜨거웠던 2000년대가 서늘한 유머와 함께 묘사됐다. 한없이 가볍다가도 한없이 무거워지는, 그러다가 이내 제 무게를 찾고 마는 그런 문장들이, 남 웃기는 것을 좋아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잘 웃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우울한 일기를 써 내려가던 박상영 소설가와 꼭 닮았다. 박상영 소설가의 첫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는 문학동네에서 10월 출간 예정이다.

작가로서의 삶

“20대 후반에야 작가를 꿈꾼 줄 알았는데, 최근에 생활기록부를 떼어보니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장래 희망란에 작가라고 적었더라고요.”

박상영 소설가는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나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소설가가 된 것은 2016년. 그에게 습작 기간이 길었는지, 그때 그런 작가로서의 삶과 지금의 삶이 많이 닮았는지 물었다. 그가 특유의 웃음기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습작 기간은 길었고, 그때 그런 삶과는 많이 다르네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하던 일을 그만두



고 2013년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2015년에 석사를 수료했고, 2016년이 돼서야 신인상을 받았어요. 작가로서의 삶은…… 등단하고 나서도 꽤 오래 출퇴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카페에서 소설을 쓰고 출근했어요. 그때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연재도 하고 있었죠. 전업 작가가 된 것은 정말 얼마 안 되네요.”

전업 작가가 돼 좋은 점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훌쩍 떠날 수 있는 점이라며, 요즘 가파도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지도에서 찾아보니 제주 남단에 있는 섬 하나가 보였다. 그 먼 가파도에는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곳에서의 창작 생활은 어떤지 들었다. “제주문화재단의 초청으로 9월부터 가파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침 장편소설을 탈고하느라 내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고, 새로운 환경이 절실했는데 좋은 기회다 싶어서 바로 왔습니다. 기존에 문학동네에 발표한 단편 〈동경 너머 하와이〉를 경장편 분량으로 고치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가파도에 묵는 동안 초고를 얼추 완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곳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해도 일찍 지고 가개도 일찍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고독해지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은근히 평생을 대도시 근처에서만 지내왔더라고요. 여행도 큰 도시 위주로만 다녀서인지 새삼 자연을 실감하고 있어요.”

《대도시의 사랑법》을 쓴 작가다운 대답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침 《대도시의 사랑법》이 2021년 신동엽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에게 살짝 뒤늦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대도시의 사랑법》의 번역본 출간 일정을 물었다. 그는 9월에 일본어판이 출간된 상태고 10월 말에 영국·미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출간된 일본어판의 반응은 어떤지 물었다.

“현직 전문 잡지에서 리뷰를 들고는 하는데 예상외의 호평이 많아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나라의 제 언어가 아닌 지라 뭔가 다른 사람의 작품 얘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주최로 일본 독자와 온라인상에서 만났는데, 한국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몹시 기쁜 기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격동 속에서 열정적으로
문제를 헤치면서 온 현주소가
과연 올바른 곳인지에 대한 의문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쁜 표정으로 대답해 덩달아 마음이 환해졌다. 환한 마음으로 출간이 임박한 지금의 소감을 묻자 그가 금세 우울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상하게 책 나올 때만 되면 우울해져요. 우울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매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레지던스에 참여한 작가들과도 교류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책이 출간되는 일은 작가로부터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하나의 이별과도 같은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에게 이번에는 동료로서 위로를 건넸다. 그러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농담을 건네며 웃었다. 웃을 때면 진해지는 인디언 보조개가 쪽 들어갔다. 그러자 언젠가 그가 쓴 작가의 말이 떠올랐다.

글을 쓸 때(혹은 일상을 살아갈 때) 홀로 먼지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손에 뭔가 닿은 것처럼 온기가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감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말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금 주먹을 꽉 쥐어 이 사소한 온기를 껴안을 수밖에 없다.

《대도시의 사랑법》중

필자는 그에게 말하고 싶어졌다. 부서지기 쉬운 감정과 단어도, 박상영의 소설에서는 그들만의 온전한 무게와 온도를 갖게 된다고. 그러니 언제든 주먹을 꽉 쥐어보라고. 당신이 되찾은 그 무게가 당신의 손에 오롯이 느껴질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져 필자는 2000년대로 돌아간 청소년처럼 고작 3 개를 타이핑해 그의 메신저로 전송할 따름이었다.

글 송지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서 〈핑크록스타일 빨대 디자인에 관한 연구〉(2013)로 당선됐다. 소설집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에세이집 《동해 생활》을 발간했다.
사진 제공 문학동네

융합 시대, 감각의 확장



**“융합 시대에 새로운 경험은 공감각의 확장,
즉 확장현실로 나아갈 겁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준비한 쇼케이스 전시 <XR-SAPY: 예술로 현실을 확장하다>를 이끈 김인현 예술감독은 청년예술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작곡을 전공한 이후 다른 장르와 끊임없이 협업을 이어온 그가 이제는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실감 기술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모험은 모든 예술가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데 큰 힘이 돼준 한 축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확장현실 기술은 예술의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수단이라며, 이 때문에 예술과 기술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

실제로 청년예술청에서 젊은 예술가 4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1%의 응답자가 “뉴미디어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에 선발된 세 팀 15명의 청년예술가는 김인현 감독의 지도 아래 다양한 가상현실 기술이 탑재된 체험형 예술 세계를 만들었다. 특히 청년들이 고민하는 현대사회의 불안감, 사이버 폭력, 20대가 느끼는 허무함 등을 소재로 한 명의 관객이 한 방향으로 느끼는 전시가 아니라 홀로렌즈 등의 장비를 착용해 확장현실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XR-SAPY> 이후에도 홍대거리가 메타버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 <XR Art Street 마포-NOW> 등의 다양한 융복합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예술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추종과 맹목적 차용은 오히려 창조성을 움츠리게 해요. 흥미로움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술과 창조적 의지가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때 의미가 빛날 거예요.”

김인현
예술감독

김인현은 미국 맨해튼 음악대학에서 작곡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에서 예술학협동과정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창작음악제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XR전시, 퓨처데이즈 예술감독, 피터앤더울프 주식회사 부사장과 건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색깔’ 드러내는 춤추기

“그게 중요한 것인가 싶어요.”

350년이 넘는 파리오페라발레 역사에서 ‘아시아인 최초의 에투알수석무용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박세은에게 에투알 수석무용수 소감을 묻자 한참 고민을 거듭한 뒤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발레는 국경이나 인종, 피부색을 뛰어넘는 예술인데, 굳이 그런 타이틀이 붙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인터뷰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답하기가 어려워요.”

2011년 입단 이래 그는 자신의 경력에 견주어 좋은 캐스팅을 자주 받은 덕분에 군무부터 솔로까지 다양한 무대에 올랐고, 코리페코무리더로 승진한 후 주역급의 역할을 맡는 등 무척 바쁘다고 한다. 그래서 ‘동양인이 (에투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테크니션이었지만, 지금은 춤의 아름다움과 표현력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프랑스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춤에 정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언제나 정답을 찾아야 했었죠. 안 되는 동작이 있으면 부단히 노력해서 무조건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프랑스에 와보니 제가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에투알마다 색깔과 스타일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알았다며 이후 솔리스트가 된다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춤을 추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프랑스에 온 지 10년 만에 이력서에서 가장 높은 마지막 줄을 채운 그에게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특정한 무언가로 기억되고 싶진 않아요. 러시아와 프랑스의 차이이기도 한데, 하나만 잘해서 에투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소화해야 하거든요. 세상엔 너무나 많은 춤이 있고, 그 안에서 기억에 남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박세은
무용수

박세은은 1989년에 태어났으며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 ABT 스튜디오 컴퍼니 입단 이후 2009년 국립발레단, 2011년 파리오페라발레단 준단원, 2012년 8월 정단원, 같은 해 11월 코리페, 2013년 쉬제솔리스트, 2016년 프리미에 당쇠르제1무용수를 거쳤으며 2018년 브누아 드 라 당스를 수상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에투알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살다

이제 가을은
북태평양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여름내 그을었을
서울 어드메
모퉁이를 지나네
“지단여름 잘 참았네”
톡 건네고는 남쪽으로

〈예술통 골목〉

*예술통은 중구 필동과 남산골한옥마을 일대에
‘예술적 장소 만들기’를 시도한 도시재생 사례다.
후미진 거리에 미니 갤러리와 조경·조각·벽화를 조성해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전문위원

greenery market





greenery market

17

- 5
- 4
- 3
- 2
- 1

‘너의 나라’에서 ‘나의 고향’을 만나다

부모 예술가와 함께하는 유아 예술 프로젝트
〈일상과 예술의 만남〉 결과 공유 좌담회

일시 2021년 8월 24일 오후 1시~4시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사회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참여 예술가 국동완 시각예술가/만 5세 최서윤 엄마

윤성필 시각예술가/만 2세 윤주호 아빠

김정인 피아니스트/만 3세 락우드도민의 엄마

박재영 현대무용가/만 4세 박정후 아빠

이지은 현대무용가/만 4세 변규민 엄마

이해진 연극배우/만 5세 안재윤 엄마

〈일상과 예술의 만남〉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공동 기획한 유아 예술 프로젝트로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가 6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7주 동안 진행됐다. 영유아의 예술교육은 일상과 놀이 속에서 이뤄지는 미적 체험이라는 방향성을 제안한 2019년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재단은 예술적 경험을 이끌어줄 매개자로 영유아의 부모이자 예술가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프로젝트를 구성했다. 참여한 부모 예술가들은 아이의 일상과 자기 예술에 대한 탐구를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의 연구진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과 기획자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존재’로서의 유아를 재발견했으며(너의 나라), 그중 일부는 아이의 놀이적 행위에서 자신의 삶과 예술의 근원을 발견하기도 했다(나의 고향). 시간이 흐른 뒤 부모 예술가들이 다시 모여 프로젝트 이후의 삶을 돌아보고 올해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 아이의 우주를 바라보다

양혜정 저희는 7주간의 워크숍을 유일하게 경험한 사람들로, 이 경험을 갖고 부모·예술가·일반 시민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지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몸의 접촉과 움직임에서 출발해 예술가의 작업과 아이들의 놀이, 예술가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해 봤는데,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떠오른 생각과 개인의 고민은 다 달랐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의 삶과 작업, 아이와의 관계나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각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동완 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킬로퀴럼Colloquium에 참여하면서 주변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주변에서 자기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돌봄 형태에 예술이 어떻게 스며드는지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돌봄과 예술, 작가와 같은 키워드를 관심사와 엮는 작업이 여기저기에서 움트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느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에 집안일이 많이 쌓여 있어도 아이와 있을 때는 같이 놀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됐는데요. 사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걸 느껴요. 감각이 조금 사라



지긴 했지만 점점이 계속 생기다 보니 여운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양혜정 오프라인 대면 워크숍과 집 안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온라인 형태를 병행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엮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또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나를 위한 작업'에서 나와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동원 아이와 같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하는 제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데, 사실 아이는 제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몰랐잖아요. 체계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변했고 어떤 상태가 돼서 아이를 만나는지가 주가 된 것 같아요.

김정인 클래식 음악계는 아직 이런 이야기의 불모지인데요. 가장 큰 울림은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방대한 예술 안에서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5살과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둘째가 아직 말은 못 하지만 의사 표현은 다 해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제 모습이 조금 말랑해졌다고 할까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엄마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유연함이 생겼어요. 저는 클래식 예술가들과 같이 해보고 싶어요. 클래식 음악계는 아이 낳고 경쟁하듯이 몸도 다 안 풀린 상태에서 다시 연주하러 나와요. 너무 힘들지만 무대에서 잊힐까 봐 다들 그렇게 해요. 출산과 육아로 공백이 생긴 예술가와 육아를 병행하는 예술가들의 '줌' 온라인 회의 모임에도 가봤는데요. 이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 중 저 혼자만 클래식 음악가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여기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제 상태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저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개인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원 사업에 신청했는데요. 제 아이를 위한 콘서트, 아이가 관객이 되는 공연을 콘셉트로 했어요. 매번 아이를 맡기고 공연을 하러 가다 보니 정작 제 아이는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통했는지 사업에 선정돼서 각자 다른 악기를 하는 엄마 음악가 5명이 모여서 아이에게 들려



부모 예술가와 함께하는 유아 예술 프로젝트 〈일상과 예술의 만남〉 결과 공유 좌담회 현장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국동완
시각예술가

주고 싶은 음악을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필 작년의 프로젝트가 제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많이 집중했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관점의 변화를 체득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망각을 하니 이런 프로젝트나 교육이 지속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교육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혼자를 대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난 후 관찰하면서 하기보다는 선행학습이 돼서 아이들에게 적용되면 좋겠어요.

양혜정 아이들은 실존하는 존재이고, 주체성을 가진 시민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집단끼리 모여 있다 보니 아이가 없거나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와 공존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비 부모보다는 시민의 감수성, 존재적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린이를 주제로 한 작업을 20대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를 처음 만나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부모가 된 이후의 삶은 예측하기 힘든 상태로 밀려서 가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육아의 주체가 돼야 하는 엄마,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는 아빠의 위치가 있는데

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 엄마는 뭐라고 하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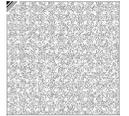
윤성필 평소에 잘 안 하던 사진과 비디오를 찍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지 궁금해했어요.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몸으로 놀아주는 것을 주로 하고, 엄마는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겨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제 배 위에서 막 뛰고 놀거든요. 그러면서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양혜정 저는 요즘 예술가들의 몸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이 작업할 때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육아에서도 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몸 안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 육아의 태도가 다 들어 있거든요.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본인이 하는 예술과의 상관성에 대해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지은 저는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신체 놀이 등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끝나고 나니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릴 때의 기억이 자꾸 생각났고, '나는 왜 이걸 기억하고 있지, 그때 우리 엄마는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젝트 전에는 아이가 놀고 있으면 같이 놀았는데, 지금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기'를 해요.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할 때 이제는 그 공간 자체를 비워줘요. 어릴 적 놀던 기억에는 그 공간 안에 엄마가 없어도 괜찮았거든요.

저는 프로젝트 후에 제주도에서 워크숍과 공연을 했어요. 무용가와 비전공자가 섞여 있는 공연이었는데, 이때 제가 '내버려 두기'를 하더라고요. 기획하신 분이 작년과 다른 저를 보면서 걱정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결국 즉흥으로 하다 보니 무리를 해서 공연 시간이 길어졌지만 저는 나름대로 좋았어요. 7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내려놓음'이 생겼어요.

저는 늦게 결혼해서 동생이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요. 첫 조카가 너무 예뻐서 뭐든 다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성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주체성을 뺏어버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부모들도 첫아이다 보니 다 그렇게 행동했지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예비 부모 교육이 필요해요. 예술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스스로가 바뀌어야 아이를 대하는 것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양혜정 육아는 대부분 어떻게 채울지를 생각하지, 어떻게 비울지를 묻는 경우는 없어요. 아이와 부모의 만남은 비움이 좋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무엇을 해줄 것인가'는 항상 유아 예술교육의 이슈였거든요. 아이들 각자가 갖고 있는 자발성, 주체성, 내적 충동을 어떻게 존중하고 발현할 수 있게 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유아 예술교육 현장을 보면 어른과 예술가가 제일 바쁘거든요. 정작 아이들은 색깔 고르기 같은 매우 간단한 영역만 하고 칭찬을 받아요. 민지 않으면 비울 수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예요.

국동완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면 서로 바쁠 필요가 없고, 아이는 어딘가에 집중하고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양혜정 아이마다 세계를 접촉하는 독특한 방식과 취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놀이는 자신의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고 관점이에요.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왜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주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분명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어도 한 사람이 경험으로 가져가거나 자양분으로 삼는 방식은 다 달라요. 모두 다른 행성에 살면서 한순간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마법

같은 일인가요. 연극을 1~2시간 하는 동안, 관객들이 집중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경험에 놓이면서 합의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술은 그런 순간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런 이유로 오프라인 현장은 한 장소에 모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감각적인 만남은 항상 중요한 요소로 존재해야 합니다. 육아에 대한 감수성도 몸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서 접촉해 본 경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내 몸이 달라져서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었던 경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진 저는 육아를 하면서 치열하게 작업해 온 다양한 예술가를 만나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연극은 공동 작업이다 보니 엄마들은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경단녀'로 지내면서 거의 포기 상태에서 1인극을 하거나 아이 엄마들과 작업을 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예술가인지 고민했는데요.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도 하나의 예술이라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배우로서는 단절됐지만 일상에서 상상하고 시를 쓰며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적으로 상상하고 존재하는 배우'라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초 다시 연극을 시작했어요. 집에 있다 보면 저는 남녀노소 다 좋아해서 찢어서 나눠 주는 게맛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자유롭게 바닷속을 헤엄치던 게였거든요. 제 존재는 달라졌지만 이미지를 상상하면 하나의 자유로운 존재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시를 써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만족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에 행복해하며 연명해 온 것 같아요.

프로젝트 이후 12년 지기 친구들과 공동 창작으로 <달팽이 철물점> 공연을 했어요. 시를 쓰고 노래도 부르고 움직임도 하고 있어요. 육아로 인한 2년 반의 공백에 마침표를 찍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더라고요. 공동 작업도 엄마와 아이의 관계와 같았어요. 싸우고 야단치고 빼치기도 하지만 서로 놓지 않는 신뢰와 사랑의 끈이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힘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영 저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생겼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위한 움직임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무용수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세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감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어볼 계획도 있고요. 요즘은 공연이 많지 않고, 공모 사업은 많긴 한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최근에 지인과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갈증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연습

윤성필

시각예술가



김정인

피아니스트





이해진
연극배우



이지은
현대무용가



박재영
현대무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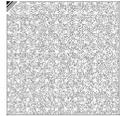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아요. 회사원들이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더
 라고요. 아이와 소통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프로젝
 트 후에는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이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체험과 변화, 그 이후를 생각하다

양혜정 작년 프로젝트는 영유아기 아이들의 주체적인 감수성을 회복
 하는 놀이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찾아본 여정이었는데요. 이
 를 통해 일상에서 어린이는 예술가이고, 놀이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이루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린이와 예술가가 함께 만나려
 면 '열린 프로그램'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즉흥적인 탐색 과정이 일
 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어떤 작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구체적으
 로 주제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예비 부모나 결혼 예정인 부부를 위한
 부모 예술교육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재
 단에서 어떤 열린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해진 저는 아무 계획이 없는 즉흥이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연
 히 발견해서 더 몰입하는 순간이 있고요. 그래서 예술가 가족들이 즉
 흥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지로 캠핑
 을 가서 낚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그룹 단위로 만나보는 거죠.
 여행은 모험이기도 하잖아요. 새롭고 낯선 것을 경험할 때 어른도 아
 이도 신나고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상태를 자연에서 함께 체험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어둠을 느껴보고, 시냇물 소리도 듣는 그런 경험이에요.

국동완 저는 '움직임, 새롭게 하기, 순간을 발생시키기'라고 써봤어요.
 저는 여전히 부모가 말랑해지는 프로그램을 제일 하고 싶어요. 사실
 첫날 프로그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유도 모르게 평
 평 울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분
 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굉장히 뻣뻣한 사람임에도 할 수 있었어
 요. 육아하는 사람들이 말랑한 상태를 최대한 계속 만나게 해주는 것
 이 필요해요. '내'가 바뀌면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요. 예술은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만나는 경험인데요. 그
 만남의 순간을 계속 발생시켜야 해요. 그 순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



이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짜기보다 그런 순간이 발생하는 장치를 많이 만들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어요.

이지은 저는 몸에 관심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기능적인 몸에서 무용을 하면서는 표현하는 몸·재활·건강에 관한 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는 영양을 주는 몸으로 관심의 지점이 바뀌었어요.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 앞만 보고 사는데, '돌아가 보기'를 하면 어떨까요. 언젠가로 돌아가 잊힌 감수성이나 기억, 그 시절의 '나'는 어떤 아이였는지 떠올리는 거죠. 요즘은 제 아이에게 교육을 하거나 경험을 줘야 하는데 제가 그러기에 충분한 경험과 교육이 돼 있는지 질문해요. 부모의 경험이 아이에게 이어지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부모가 먼저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인 우리는 기승전결을 좋아하잖아요. 예술에서도 '결'을 봐야 하고요. 그 '결'이 어떤든 그만의 '결'로 인정해 줘야 하는데, 자꾸 어떤 틀을 바라죠. 공연은 미취학 아동 관람 불가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공연장에 와서 악기를 접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감상하는 가이드라인을 썼는데, 이제 더는 아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못 주겠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저의 음악과 본질을 지키면서 아이들에게는 기승전결을 주지 않고 열린 결 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이 음악 듣는 것을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결말은 아이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술가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기관이 많아야 해요. 아직도 예술교육이라는 틀이 있고, 행정 하는 분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양육하는 예술가를 위한 양육'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필 저는 예술가와 아이들의 놀이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흥미가 먼저이고 집중하면 창조적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교육의 목적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결과나 창작물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교육은 결국 흥미 유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유아에게는 다양한 재료를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부터가 출발이고, 결과는 그 이후의 얘기가 될 것이고요. 놀이를 통해 집중하고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성취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자존감을 높

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면 엄마에게 '나 잘했지'라고 확인하잖아요. 표현한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행동이 예술가들이 전시를 여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면서 돌·나무·철·흙을 만져볼 시간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통해 재료와 친근해지면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취하거든요. 아이들도 로봇을 만지고 공룡모형을 만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려고 해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쓸 때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기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박재영 저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아이와 부모를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린이나 중학생 대상으로 움직임 수업을 해 보면 마음을 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예 열리지 않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해본 경험이 없던 거죠. 저는 교육을 해야 하고 아이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악순환이 돼요. 예술가로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워요. 제가 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부모·일반인과 공유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은 즉흥 공연을 하자고 해도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가 진짜 열려서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한번 해보라는 분위기라서요. 예술가 스스로 '나'를 도구로 사람들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접촉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빠, 엄마와 손만 잡아도 느껴지는 것이 분명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시작해서 예술가들이 사명감을 갖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사회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요. 1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아이들과 몸으로 하는 즉흥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외국 아이들을 지도할 때와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이와 부모를 열어주는 것은 접촉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혜정 오늘 온라인으로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를 집중해서 듣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기 구성원들이 주는 에너지가 계속 피드백되면 좋겠고, 분야를 정해서 다음 프로젝트로 밀고 나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AI 장편소설’이 던진 물음표

《지금부터의 세계》는 ‘국내 최초의 AI가 쓴 장편소설’을 표방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예고 보도자료만으로도 출판계의 이목을 끌었고, 8월 25일 출간에 맞춰 열린 기자간담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세간의 관심은 소설의 줄거리나 메시지가 아니었다.

진짜 AI가 쓴 것이 맞느냐. 기자들의 질문도 그 진위에 집중됐다.

장편소설을 작성한 AI 비람풍과 소설감독 김태연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음표’다. 《지금부터의 세계》의 추천사를 쓴 소설가 이문열이 이 소설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본 사람만이 창작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무수한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 시대의 문제작”이라고 한 까닭이 있었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소설감독’ 김태연과 출판사 파람북 정해종 대표의 설명을 2시간 넘게 들은 뒤 의문점은 도리어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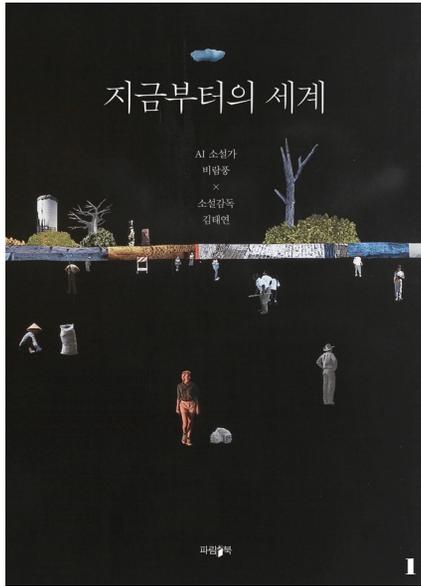
2016년 AI ‘알파고’가 이세돌과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친 이후 인공지능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놓고 대중의 관심이 크다. 기술 발달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면서 동시에 과학 기술이 절대 침범하지 못할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인간으로선 ‘마지막 보루’를 확인하고 싶은 바람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의 영역은 AI와 경쟁이 되지 않았다. 소설의 경우 2016년 일본에서 AI가 쓴 SF 단편소설이 호시 신이치 문학상의 1차 예심을 통과한 적이 있고, 국내에선 2018년 ‘KT 인공지능소설공모전’이 개최되기도 했지만 작품성을 논할 수준은 아니었다. 더욱이 장편소설은 AI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분야였다.

출판사가 밝힌 《지금부터의 세계》의 작가는 AI ‘비람풍’이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말로 우주 성립의 최초와 최후에 분다는 거대한 폭풍을 뜻한다. 문학사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소설을 기획하고 풀어낸 김태연 작가에게는 ‘소설감독’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붙였다. “주제와 소재, 배경과 캐릭터를 선정하고 스토리보드를 담당하는, 영화에서의 감독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했다.

김태연 소설감독은 출간 경력이 있는 소설가다. 1987년 월간《문학정신》으로 등단해《폐쇄병동》《그림 같은 시절》《기형도를 읽고 나는 쓰네》 등의 장편소설을 냈다. 연세대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한 과학도로, 1989년부터 5년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2014년 8월 세계수학자대회에 참가해 세계적인 수학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AI 소설’의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지금부터의 세계》는 그 후 7년 동안 작업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부터의 세계》의 실제 집필은 소설 쓰기를 학습한 AI가 했다. AI의 문장력은 교정을 거의 보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 말한다. 하지만 아직 AI 혼자 완전한 창작은 불가능하고 사람의 개



입이 필요했다. 사람이 인물과 사건, 시간과 공간 등 기본 구성과 이야기의 콘셉트를 짜줘야 한다. 예를 들어 “용감한 공주가 사악한 왕자에게 사로잡힌 아름다운 용을 구출하러 가는 이야기를 써줘”라고 요청하고 도입 부분을 써주면 AI는 그에 맞춰 세부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른바 ‘대필 작가’의 역할을 AI가 하는 것이다.

예술 관점에서 논의는 필요하다

그는 말했다. “가령 간호사인 철이가 한겨울에 강릉 경포대에서 변호사인 미애를 만난다는 단막극을 가정해 보자. 리프한 구상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간호학적 혹은 의학적 디테일, 강릉 경포대의 묘사와 법률적 지식, 그리고 날씨가 기타 여러 세부 사항의 상호연관성을 구현하려면 상당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찾아내고 주어진 한국어 스타일에 녹여내는 작업을 AI가 한다. AI가 복잡한 소설을 구상할 능력 자체는 아직 없지만, 그런 복잡성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작업의 번거로움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해낸 AI의 개발은 그가 2015년 출범시킨 인공지능 스타트업 ‘다품다’와 이무기(가명) 교수가 운영하는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 ‘나매쓰’(가명)가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실

1 소설《지금부터의 세계》표지
2 출간 당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데다 활용한 기술과 개발 비용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AI로 500쪽 넘는 장편소설을 써낸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비밀에 부쳐야 하는 ‘나매쓰’의 입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연 소설감독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지금부터의 세계》를 둘러싼 논란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제 ‘소설 쓰기’의 시대가 아닌 ‘소설 연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소설가는 주제 설정과 구상처럼 좀 더 차원 높은 일을 하고, 단순 작업에 해당하는 실제 글쓰기는 AI에게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는 AI에게 ‘창작자’ ‘작가’란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걸까. 소설 창작에서 차원 높은 일과 단순 작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실사 작품 구상까지 가능한 AI가 등장한다 해도 인간의 통찰과 각성이 배제된 소설이 문학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혼란과 고민이 깊어진다.

글 이지영 <중앙일보> 기자 | 사진 제공 파람북

블랙리스트·미투 겪은 예술인, 법으로 권리 보장받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8월 31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을 겪으며 드러난 예술인의 취약한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법이다.





문화예술계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법 제정 추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창작의 기본 토대인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의 제도적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 위계 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화예술계가 최근 몇 년간 겪은 여러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예술인의 권리는 헌법에도 규정된 기본권 중 하나다. 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고, 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추진된 배경에는 문화예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두 가지 사건, 바로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이 있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조사 기구로 꾸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9,0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창작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사 사례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법적 근거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여기에 2018년의 미투 운동은 위계에 의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성폭력에 취약한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는 성 평등한 창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2017년 하반기에 제정 논의가 시작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8년 4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서 2년 동안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21년 6월 1일 김영주 의원이 21대 국회에 다시금 법안을

발의했고, 8월 31일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제정까지 무려 4년이나 걸린 셈이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 쟁점, 실효성 있는 시행령 논의 필요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블랙리스트와 같은 예술인의 권리침해나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예술인권리구제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술인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예술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계약이 많아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예술인 외에도 예술대학 학생처럼 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예술인까지 확대한 점도 중요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앞장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의 정윤희 공동위원장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침해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장 방안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예술인에게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문화예술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처음 추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법안에 담고 있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해당 부분은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입장에서 별도 기구로 설치되길 바라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성폭력구제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진 것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희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예술계 현장과 소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장병호 《이데일리》 기자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서다

문화예술과 플랫폼의 결합

최근 유튜브·틱톡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문화예술계를 알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 플랫폼은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고, 모바일 기기로 이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녔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잠재적 주체이자 관객인 젊은 세대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일 기회다.

전통문화의 대중화 노력

전통문화를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통문화는 거리가 먼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전통문화는 사라지기엔 그 속에 보존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많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의 이용자에게 전달하고자 문화재·무용·뮤지컬·국악 등 순수예술계는 꾸준히 노력했다.

한국문화재단은 네이버와 함께 올해 6월부터 매달 한 명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출연하는 라이브 커머스 <박경림의 사는 의미-우리 전통문화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대표 문구는 “사는Live 의미를 알아야 사는Buy 재미가 있다”로, 젊은 세대에게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알린다. MC를 맡은 방송인 박경림 씨가 장인의 공방으로 찾아가는 토크쇼 방식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한다. 시청자는 영상으로 공방을 둘러보고 작품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다. 장인의 작품도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

7월 진행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장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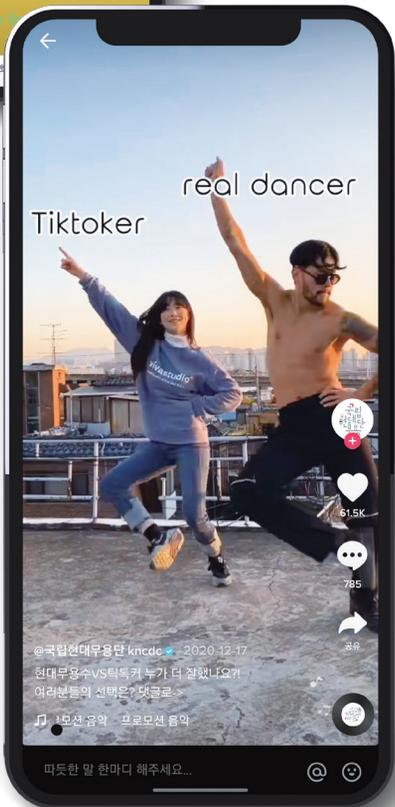
라이브 커머스는 13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모았다. 김기호 장인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자신의 공방에서 금박장을 만드는 과정과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9월 1일에 진행된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서신정 장인의 라이브 커머스는 약 37만 명이 시청했다. 라이브 커머스와 전통문화의 결합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MZ세대가 즐겨 찾는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한 것은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존 방식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간에는 장인들이 강연에 나서거나 자신의 공방에서 작품 제작을 시연하는 방식 등으로 전통문화를 알려왔지만 참석 인원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매회 10만 명 정도의 시청자에게 전통문화를 알릴 기회가 마련됐다. 또 장인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담은 실시간 소통 방식은 시청자의 전통문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인들이 낯선 방식에 도전하면서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의 사명감이다. 6월 라이브 커머스에 나선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박명배 장인은 “무형문화재는 방치해 두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통을 계승하고 보급할 수 있다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도 기꺼이 도전하겠다”고 전했다.



7월 라이브 커머스에 나선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장인



국립현대무용단 틱톡 '리얼 댄서 vs 틱톡커' 영상 갈무리

잠재적 관객이 문화예술과 친숙해지는 과정

뮤지컬계의 라이브 커머스 활동도 눈에 띈다. 한 예로 뮤지컬 <비틀즈>의 '리디아' 역을 맡은 홍나현 배우가 직접 MC로 등장해 준비 중인 무대의 면면을 소개하고, 동료 배우들을 인터뷰해 소중한 소감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특히 일반 관객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배우 대기실·분장실·소품실 등을 보여줘 흥미를 끈다. 이는 물론 공연 티켓 판매에 영향을 준다.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된 이후에 주요 예매 사이트에서 티켓 판매량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무용계는 틱톡에서 뚜렷한 홍보 효과를 나타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틱톡에는 짧은 시간 재생하는 동영상에 여러 꾸밈 효과와 함께 올라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무용의 대중화를 목표로 틱톡에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특히 무용수와 틱톡 인플루언서가 함께 등장한 '리얼 댄서 VS 틱톡커' 영상은 조회 수 100만을 넘었다. 짧은 영상에 무용수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움직임이 담긴다. 이에 힘입어 지난 8월에는 무용 콘텐츠 제작 장려 사업 '무용인 틱톡'을 공모했다. 무용인 크리에이터를 선정해 10월 31일까지 틱톡에 올리는 무용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무용인이 직접 제작하는 재미난 영상으로 무용의 대중화를 견인하고자 기획됐다. 현대무용, 아이돌 커버댄스, 발레 등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구성의 영상을 만들어 쉽고 재미있는 무용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 돈 내고 봐야 할 공연을 집에서 보는 것과 다름없다.

국립국악원은 유튜브에서 '국악인in' 프로젝트로 국악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국악기 연주자·국악가·국악 그룹 등이 출연해 국악가요나 판소리 공연을 진행한다. 사적·공원·미술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진행해 영상미까지 담았다. 영상 시청자들은 "가곡이 너무 아름답다" "힐링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화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점차 사라지기 마련이다. 전통문화는 물론 무용·뮤지컬 등 비교적 대중의 관심을 받는 문화까지 코로나19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의 라이브 커머스, 틱톡, 유튜브 등의 플랫폼 진출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행히 그 결과 또한 성공적이다. 앞으로 문화예술계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꾸준히 결합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를 통해 좀 더 많은 대중이 문화예술과 친숙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이기욱 <동아일보> 기자 | 사진 제공 한국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예술이 있는 공간,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서울의 대표 공업지대, 독산동의 한 낡은 인쇄 공장은 2009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으로 재탄생했다. 금천예술공장은 시각 예술 분야의 국제 창작 레지던시로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예술을 실험하는 공간이다. 예술가의 거주 공간이기에 항상 공개하기 어렵지만, 일 년에 단 한 번 '오픈스튜디오' 기간에만 모든 곳을 개방한다.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삶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금천예술공장의 열두 번째 오픈스튜디오 <On & Off>를 소개한다.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공장

젯빛 공장 사이로 로봇이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있다. 금천예술공장이 개관할 때부터 함께한 이 로봇 설치물은 이기일 작가의 작품으로 이제는 금천예술공장의 상징물이 됐고, 10여 년 전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예술을 꿈꾸던 공간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듯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금천예술공장은 매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20명 남짓의 예술가가 입주해 다양한 예술을 실현하는 거점이 돼주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전화기 코일 공장으로, 1990년대에는 인쇄 공장으로 활약한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또 다른 공장으로 국내외 시각예술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금천예술공장의 열두 번째 오픈스튜디오 <On & Off>

레지던시 공간은 일반적인 전시장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업실이자 거주 공간이다. 그렇기에 레지던시에 입주한 예술가는 개별 작업실에서 작



업을 이어갈 뿐 아니라 주변을 산책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동료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예술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2021년 이 공간,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한 16명의 예술가가 바라보고 느낀 것은 무엇일까? 예술가의 하루는 어떨까?

금천예술공장은 올해 열두 번째 오픈스튜디오를 조금 특별하게 <On & Off>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그간 예술가의 작품만을 집중해 보여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레지던시 공간의 특성을 살려 예술가의 작품과 더불어 예술가의 삶도 함께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작가의 예술적 실험과 과정을 공개하는 'ON' 프로그램으로는 스튜디오를 공개하는 <예술가의 방>과 5명의 입주 예술가가 참여하는 오픈 토크 <1:1 전문가×아티스트 토크>, 그리고 입주 예술가의 협업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또 예술가의 일상도 조망할 수 있는 'OFF'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OFF' 프로그램에는 올해 처음 기획한 프로젝트 전시 <Life Logging: 라이프 로깅>과 3명의 입주 예술가가 참여하는 온택트 아티

스트 토크 <보통의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동안 쉽게 드러내지 않은 예술가의 작품 이면에 존재하는 '삶' 자체와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예술가, OFF의 시간

예술가에게도 OFF의 시간이 있을까? 흔히 우리는 예술가라고 하면 긴 시간 작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레지던시에 입주한 예술가가 하는 말 중 가장 독특한 언어가 있었는데 바로 '출퇴근'이다. 진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관점에서야 이 단어가 일상적이지만, 예술가의 출퇴근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감동하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 예술가도 작업실에 '출근'하고 '퇴근'한다. 이렇게 어떤 예술가는 예술과 삶을 분리하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또 다른 예술가는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예술을 찾기도 한다.

결국 예술가에게 'OFF'의 시간은 다음 예술을 준비하기 위한 일상의 시간이기도 하고, 혹은 그 자체가 예술이 되기도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번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On & Off>는 오히려 예술가의 'OFF' 시간을 바라보며 그들의 예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되길 바란다.

2021년 금천예술공장에는 16명의 시각분야 예술가 권도연·김신욱·김영글·김영미·김태연·김희천·돈선필·문서진·문이삭·박형진·신민·유지영·임노식·전명은·최윤·허우중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2021년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On & Off>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On & Off>의 자세한 내용과 사전 예약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아래의 큐알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2020년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전경
2 <On & Off> 포스터



2021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On & Off>

일시 2021.10.13(수)~16(토) 오후 1시~9시
장소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금천예술공장
누리집 www.sfac.or.kr | 문의 02-807-4800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사전 예약 링크





풍요로운 한국미의 향연

전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과 <PARK SEO-BO>

가을은 각 미술관·갤러리의 연중 계획 중 하이라이트 전시가 열리는 시기다. 2021년 10월에는 어느 때보다 한국 미술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전시가 풍성하다. 그 가운데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과 박서보 화백의 개인전은 놓치면 아까울 전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융합한 파격적이고 대담한 전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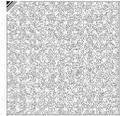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 7.8~10.10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린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융합한 화제의 전시다.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아 시공을 초월한 한국미의 DNA를 추적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근현대 미술가들이 우리 전통의 핵심으로 인식한 네 가지 키워드로 성聖·아雅·속俗·화和를 꼽았다. 각 의미는 '성스럽고 숭고하다' '맑고 바르며 우아하다'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다' '조화로움으로 통일에 이른다'이며, 주제에 맞게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박물관에서 온 국보와 보물, 현대미술품 가운데서도 명품 중의





명품으로 꾸며졌다. 입구에 들어서면 한국 회화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상징, 고구려 고분벽화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강서대묘 현무 모사도'다. 근대 거장 이용노는 생전 고구려 고분벽화가 기백과 강인한 정신,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성을 드러낸다고 감탄했다고 한다. '강서대묘 현무 모사도' 주변으로 이숙자의 '강서고분벽화 청룡도', 권진규의 조각 '해신', 박노수의 '수렵도' 등이 배치됐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담긴 정신이 근현대 미술품에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 DNA에 한국미가 남아 있음을 넌지시 암시한다.

작품의 배치도 파격적이고 대담하다. 위태로워 보일 수 있어 미술관에서 보기 힘든 세모꼴 좌대 위에 작품을 올려두는 방식으로 전시했다. 세모난 좌대가 만든 비스듬한 각도를 따라 작품 사이에 놓인 유리벽에 다른 작품들이 비치고 겹쳐 보이게 기획했다. 이로 인해 관객이 눈을 돌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국보와 보물, 유수의 근현대 미술품이 서로 겹쳐졌다 사라지고 하나가 됐다가 나뉜다. 그 순간이 보일 때마다, 마치 작품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줘 비상한 감상 경험을 하게 된다. 초기 달항아리 작품을 감상하다 고개를 들어 멀리 내다보면 그 뒤편에 놓인 현대 달항아리들이 마치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이다. 작품이 놓인 모습이 진풍경을 이루는 셈이다.

마침 덕수궁 야외 정원에서 <덕수궁 프로젝트: 상상의 정원>(~11. 28)도 진행하고 있어, 덕수궁 안팎이 예술로 풍성하다.

K-아트의 대표, 단색화 거장 박서보 개인전

<PARK SEO-BO> | 국제갤러리 K1 | 9. 15~10. 31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9월 15일 열린 박서보 화백의 개인전 기자회견에는 취재진이 많이 몰려 북적였다. 그만큼 K-아트의 대명사인 단색화, 그 단색화 그룹의 대표 주자인 '박서보'라는 이름의 무게를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90세인 그는 거동이 불편해 며느리 김영림 씨의 부축을 받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조심스레 걸었지만, 자신의 작업 세계를 설명하면서는 40여 분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그가 홍시색·황금올리브색·공기색 등 자연에서 따온 색으로 별칭을 붙인 색채 묘법 작품 16점이 공개됐다.

색채 묘법 작품은 박서보 화백의 후기 묘법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한지



1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전시 전경

2 <PARK SEO-BO> 전시 전경

세 겹을 두 달 이상 물에 불린 뒤 캔버스 위에 붙이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 굵은 연필로 일정하게 선을 긋는다. 반복해서 선을 긋다 보면, 젖은 한지가 좌우로 밀려 마치 눈동처럼 꼴이 만들어진다. 물기를 말린 후 자연의 색을 담아내기 위해 아크릴 물감을 덧칠한다. 단색화는 이같이 행위의 무목적성과 반복성이 핵심이다.

색채 묘법 작품은 예술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을 담았다. 작가의 생각을 캔버스에 담아 보는 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작가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는 수행을 하고, 그 결과물인 작품은 관객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흡수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서보 화백은 “20세기 미술은 작가가 ‘표현’이란 이름 아래 캔버스에다 토해 놓고, 사람들은 그걸 집에 걸고 그 이미지를 보면서 매일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현대엔 그것이 틀렸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구가 스트레스 병동화됩니다. 내가 마르지 않은 잉크를 죽 빨아들이는 ‘흡인자’를 쓰지요. 20세기 그림처럼 보는 사람을 향해 그림이 가는 게 아니라, 흡인자처럼 그림이 보는 사람들을 빨아 당겨줘야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미래 예술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색채를 내 화면에 유인해 내고, 스님이 반복해서 하루 종일 염불하듯 자신을 비우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이 평생 좇아온 ‘흡인’의 미덕은 배설의 시대인 오늘날 유독 울림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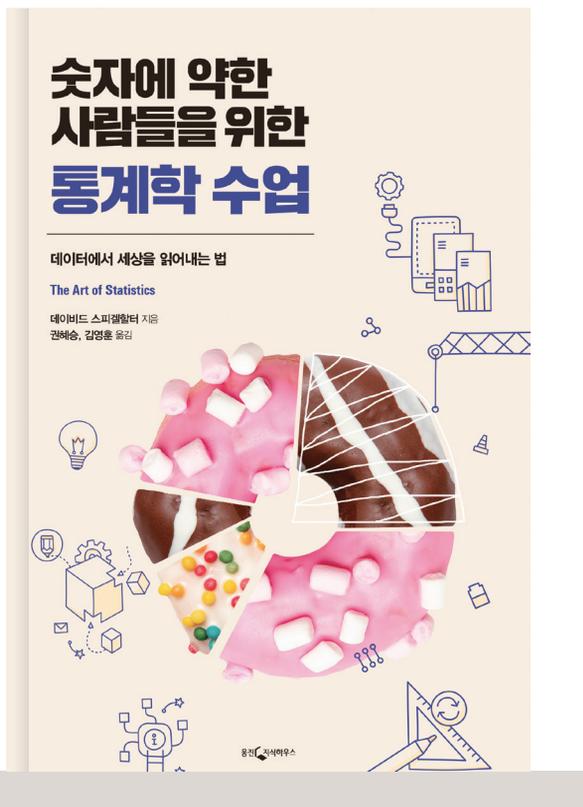
글 김예진 <세계일보> 기자 |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갤러리



슬기로운 숫자 생활

책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과
《똑똑하게 생존하기》

“숫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어의 모호함과 불완전함에 지친 사람들이 숫자에서 구원을 찾기도 한다. 숫자는 명확하고 과학적이고 거짓이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숫자는 말과 글만큼이나 진실을 호도한다. 숫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무지의 소산이기도 하고, 의도적 왜곡과 선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숫자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 두 권을 소개한다.



숫자로 만든 함정에서 벗어나기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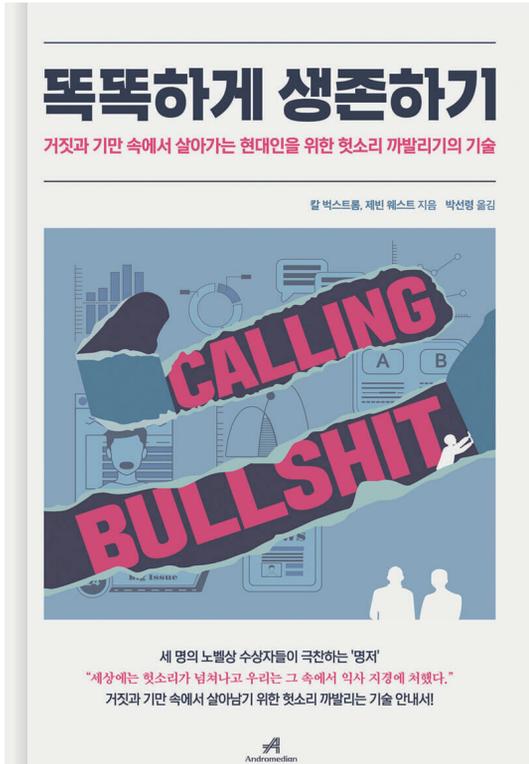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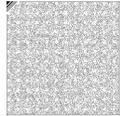
데이비드 스피겔할터 지음 | 권혜승, 김영훈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 담배·석면 등과 같은 군으로 묶었다. 50g의 가공육을 매일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장암 발병 확률이 18% 증가한다니 무시무시하게 들린다. 실상은 이렇다. 가공육을 매일 먹지 않은 사람은 100명 중 6명꼴로 대장암에 걸리는데, 매일 먹은 사람은 100명 중 7명꼴로 대장암에 걸린다는 뜻이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인데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 숫자는 객관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 달라진다. 2011년 영국 지하철에 이런 광고가 내걸렸다. “영국 청년 99%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를 “영국 청년 1%는 중범죄를 저지릅니다”라거나 “영국 청년 1만 명은 중범죄를 저지릅니다”라고 했다면 어떨까. 안도감 아니라 불안감이 커졌을 것이다.

표나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각 병원의 ‘수술 후 30일 생존율’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가 있다. 가장 낮은 병원은 96.3%, 가장 높은 병원은 99.0%다. y축이 0%로 시작하면 모든 병원이 우수한 것처럼 보인다. y축이 95%로 시작한다면 사실은 별 차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과장될 것이다. 선 그래프도 y축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x축의 기간을 어느 범위로 잡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숫자를 다룰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함정에 빠진다. 2011년 BBC는 영국의 대장암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영국 로센데일에선 10만 명당 9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했는데, 글래스고에서는 10만 명당 31명이었다. 17명가량인 국가 평균에 크게 벗어난다. 로센데일은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한 탓이었다. 표본이 적으면 튀는 결괏값이 나오기 쉽다. 실제로 도시 인구가 많아질수록 국가 평균에 가까운 사망률로 수렴했다. 인구 63만 명인 글래스고는 정말 예외적 사례였는데, 몇 년 뒤 조사에선 평균치로 복귀했다.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은 단순히 숫자가 오용된 사례만 나열하지 않는다. 저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와 왕립통계학회장을 지낸 저명한 통계학자다. 그만큼 정통 통계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 회귀 분석, 신뢰 구간, 가설 검정, 통계적 유의성 등 통계학의 핵심 개념을 어려운 수식 없이 설명하는 솜씨가 놀랍다.



헛소리에 대하여

《똑똑하게 생존하기》 | 칼 T. 벅스트롬, 제빈 웨스트 지음
박선령 옮김 | 안드로메디안

이 책은 직설적이다. “세상에 헛소리가 넘쳐난다”고 말한다. 그것도 숫자로 된 헛소리가. “신식 헛소리는 엄격하고 정확한 인상을 주려고 수학적·과학·통계학의 언어를 사용한다. 의심스러운 주장을 숫자·그림·통계·데이터로 감싸 정당성의 허울을 덧씌운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두 저자는 학생들에게 했던 ‘헛소리 까발리기’라는 수업 내용을 토대로, 숫자의 탈을 쓴 거짓과 기만을 파헤친다.

저자들이 주는 한 가지 팁은 “뭔가가 너무 좋거나 너무 나빠서 도저히 사실일 것 같지 않다면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것”이라는 점이다. 2015년 ‘음악 장르별 음악가들의 평균 사망 연령’을 나타낸 그래프가 화제가 됐다. 블루스·재즈·가스펠처럼 역사가 오랜 음악 장르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는 평균 60세 이상 살았다. 펑크·메탈·힙합 등 새로운 장르 내 음악가는 평균 40세에 못 미쳤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 충격적인 수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면 조사 대상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신생 장르에선 자연스럽게 사고 또는 폭력으로 일찍 생을 마감한 음악가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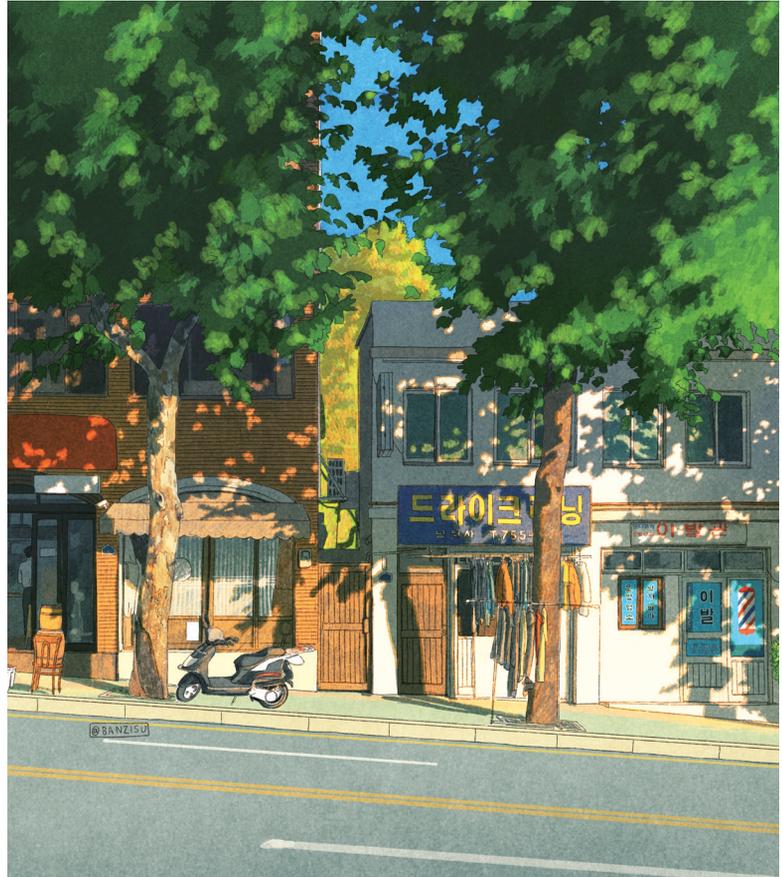
다음 문제다. A라는 대학은 평균 강좌 규모가 18명으로, 각종 대학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평균 18명이라고?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해한다.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이런 광고도 있다. 미국 자동차보험사인 가이코는 “다른 보험사에서 가이코로 갈아탄 신규 고객은 연간 평균 500달러 이상 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말은 사실일까.

헛소리는 만들기 쉽다. 비용도 적게 든다. 그에 반해 헛소리를 반박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가 든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 “거짓은 날아가고 진실은 그 뒤를 질러거리며 쫓아간다”고 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는 거짓이 날아가는 속도를 더 높여줬다. 누구나 헛소리를 만들고 널리 퍼뜨릴 수 있게 했다. 이런 행태에 편승한 것은 언론·정치·기업·학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숫자를 앞세우면서 헛소리는 더욱 교묘해지고, 반박하기도 쉽지 않아졌다.

우리에게 승산은 있는 걸까. 《똑똑하게 생존하기》는 정보의 원천을 파악하라거나, 불공평한 비교를 조심하라 등의 방어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줄이지 않는 한 설 새 없이 쏟아지는 헛소리의 공급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글 **임근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 사진 제공 **웅진지식하우스, 안드로메디안**

후암동 풍경이다.
문구점과 세탁소 간판 글씨체를 보니
그 세월이 가늠되고,
동시에 구석구석 젊은 주인들이
터를 잡은 장소가 빛을 머금어 반짝인다.
지하철역과 멀어질수록,
골목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있는 풍경이 계속 등장하는 곳이다.
남산으로 죽어어지며 보이는 언덕의 지붕들,
길마다 커다란 가로수가 만들어낸 별뿔,
천진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 마을의 첫인상은
새로운 듯 고요한 듯 정감 있다.
글·그림 반지수 일러스트레이터



건물과 가로수가 어우러진
후암동

현대문구



@BANZISU





우리 시대의 시작과 끝, 덕질

덕후 문화 탐방



바야흐로 취미와 덕질의 시대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핵심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이며, 자기만의 취미를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진정한 자아와 인생이 여가 시간에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왜냐하면 여가 시간에야말로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가닿는 취미가 있고, 자신이 '덕질'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너 덕질하니? 야, 나두

덕질이란, 본래 '오타쿠'라는 일본어가 '오덕후'로 변화하고, 이후 더 축약해 '덕후'가 되면서 등장한 말이다. 예전에는 오타쿠를 떠올리면 방 안에서 만화 등의 취미에만 몰두하는 사회부적응자로 인식하기 쉬웠지만, 갈수록 무엇이든 깊게 몰입하고 좋아하면 '덕후' 또는 '덕'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 이를 '역덕' '역사 덕후'라 한다. 역사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역사책을 읽고, 세세한 역사까지 다루우면서 찾아 읽는 행동은 '역사 덕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 '덕질' 혹은 '덕후'는 더는 욕이 아니다. 오히려 덕질 하나쯤 갖고 있어야 안심하는 편에 가깝다. 요즘 덕질하는 연예인, 덕질하는 유튜브 채널, 덕질하는 아이템 등 덕질이 곧 취향이자 개성이고, 자기만의 고유성을 내비친다. 아직 아무것도 덕질하지 않는 사람은 서둘러 자신의 취향을 탐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때론 남들처럼 유행하는 것을, 때론 남들과 달리 자기만 좋아하는 것을 하나쯤 가지는 덕질이 인생에는 꼭 필요한 일처럼 보인다.

나아가 덕질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조어가 '개

취'다. '개인 취향 존중'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널리 쓰이면서, 서로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며, 각자의 덕질을 응원한다. 무언가에 '진심인 편'이라는 밈meme도 일종의 유행이 됐는데, 무언가에 '덕질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가령 "요즘 나는 식물 키우기에 진심인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식물 덕질하고 있어"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처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드러내는 적극적인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개인 취향이 모여 시대를 이룬다

특히 미디어의 변화는 이런 개인의 '취향 존중'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였다면 아무리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취향을 마음껏 누리기가 쉽지 않았다. 영상 콘텐츠는 몇 개의 TV 채널 정도가 전부였고, 동네에서 비슷한 취미의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좋아하는 연예인도 TV에 자주 나오는 일부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넷플릭스 등 콘텐츠에 대해서 거의 무한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선택지가 넘친다. 원하는 취미를 누리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인플루언서나

셀럽도 워낙 다양해지고 많아져서, 저마다 덕질하는 유명인이 천차만별이기도 하다. 하나의 단일 문화라는 개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 와중에 '성공한 덕후'가 조금씩 등장한다. 가령 책을 덕질하던 누군가는 어느새 책에 대한 전문가가 돼 '북튜버' 혹은 작가가 되기도 한다. 식물을 덕질하던 누군가는 식물에 대해 그만큼 잘 알게 되니 어느덧 화분과 꽃을 배송하는 셀럽이 된다. 어느 셀럽을 덕질하던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SNS 댓글 등으로 안부를 주고 받더니 그 셀럽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된다. 애초에 인생의 여분에서 시작한 덕질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나아가 직업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마저 바꾸면서 삶을 '결정'한다. 그야말로 '대' 덕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대는 문화와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에 마음을 아끼지 않고, 덕질에 몰두하며 자기만의 삶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문화가 되고 사회가 된다. 그렇게 보면, 덕질 문화야말로 이 시대를 상징하는 시작이자 끝이기도 한 셈이다.

글 정지우 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사진 1



사진 2

서울의 '빌딩' 혹은 '빌딩'을 찾아서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 명패에 깃든 시간의 흔적



사진 3



사진 4



서울 시내를 산책하다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예스러운 표기법으로 쓰인 명패를 발견할 수 있다. ‘뿔딩’ ‘빌딩’ ‘뿔딩’이라는 고색창연한 단어는 그 이름을 가진 빌딩의 탄생 시기를 말해 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반갑습니다. 저는 ‘뿔딩’입니다.

서울 시내 빌딩들을 살펴보면, 이름이 새겨진 저마다의 명패를 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정부 24 누리집에 들어가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이 빌딩의 주민등록등본이라면 명패는 빌딩의 실물 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빌딩의 생년월일을 담은 머릿돌(본지 2021년 8월호 연재분 참조)과 함께 해당 빌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훌륭한 실마리다. 하지만 머릿돌이 그렇듯이 모든 빌딩에 명패가 부착되지는 않았다.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닐뿐더러 건축물대장을 봐도 건물명 정보가 텅 빈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오래된 빌딩이 예스러운 명패를 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반갑기 그지없다.

지어진 지 반세기 이상 된 오래된 빌딩의 명패는 그 자체만으로 도시의 깊이를 더해 주기도 한다. 바로 빌딩의 예스러운 표기법 덕분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한 영어 단어 ‘Building’의 한글 표기는 당연히 ‘빌딩’ 한 가지이며, 요즘 사람 중에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빌딩은 ‘빌딩’이 아니었다. 8·15 광복 이전까지 이 땅에서

‘Building’의 외래어 표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형태는 ‘뿔딩’이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한 결과 1945년 이전까지《조선일보》《동아일보》기사에 등장한 ‘Building’의 표기 건수를 조사해 보면 ‘뿔딩’ 671건, ‘뿔딩’ 370건, ‘빌딩’ 93건, 그리고 ‘빌딩’이 84건으로 파악된다. 지금은 정착된 ‘빌딩’ 표기가 당시엔 가장 소수였다. 광복 이후에는 ‘빌딩’이 점차 세를 확장해 나가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사용된 표기법은 1970년대 후반까지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러한 관성은 2차원 활자에 쓰이기를 넘어, 3차원인 도시의 명패에 새겨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2020년대의 서울 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빛을 쬐고 있는 ‘뿔딩’ ‘빌딩’ ‘뿔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빌딩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 사실의 흔적

사진①은 필동 1가에 위치한 동화빌딩(1969년 준공)의 명패이다. 광복 이전 가장 많이 쓰인 ‘Building’의 표기법 ‘뿔딩’이 사용됐다. 1960년대에 지어진 빌딩답게 빌딩의 이름 부분은 한자로 처리한 점이 눈에 띈다. 요즘의 빌딩 명패들이 금속 혹은 플라스틱 현판 위에 컴퓨터로 디자인·인쇄된 것과 다르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새긴 듯한 질감에서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사진②는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조훈빌딩(1969년 준공)의 명패로, ‘빌딩’ 표기가 사용됐다. 국문·영문 표기와 함께 빌딩 고유의 로고 C.H가 그려진 점이 특징이다. 신경 써서 로고를 새겨 넣은 정성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조훈빌딩은 준공 후 반세기를 넘긴 지금도 수만 개의 타일을 두르고 옛 모습 그대로 명동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③은 태평로 대로변 고층 오피스 빌딩의 호

시인 해남빌딩(1962년 본관 준공, 1966년 신관 준공)의 명패이다.《매일경제》의 1968년 11월 25일 보도에서 ‘치솟는 안하무인’이라 표현할 정도로 해남빌딩은 준공 직후부터 많은 기업을 유치해 큰 임대 수입을 자랑했으며, 서울 도심에 집중되는 자본의 표상으로 기능했다. ‘海南 뿔딩’이라 새겨진 명패는 사진①의 동화빌딩 명패와 제법 유사해 보인다는 점에서 준공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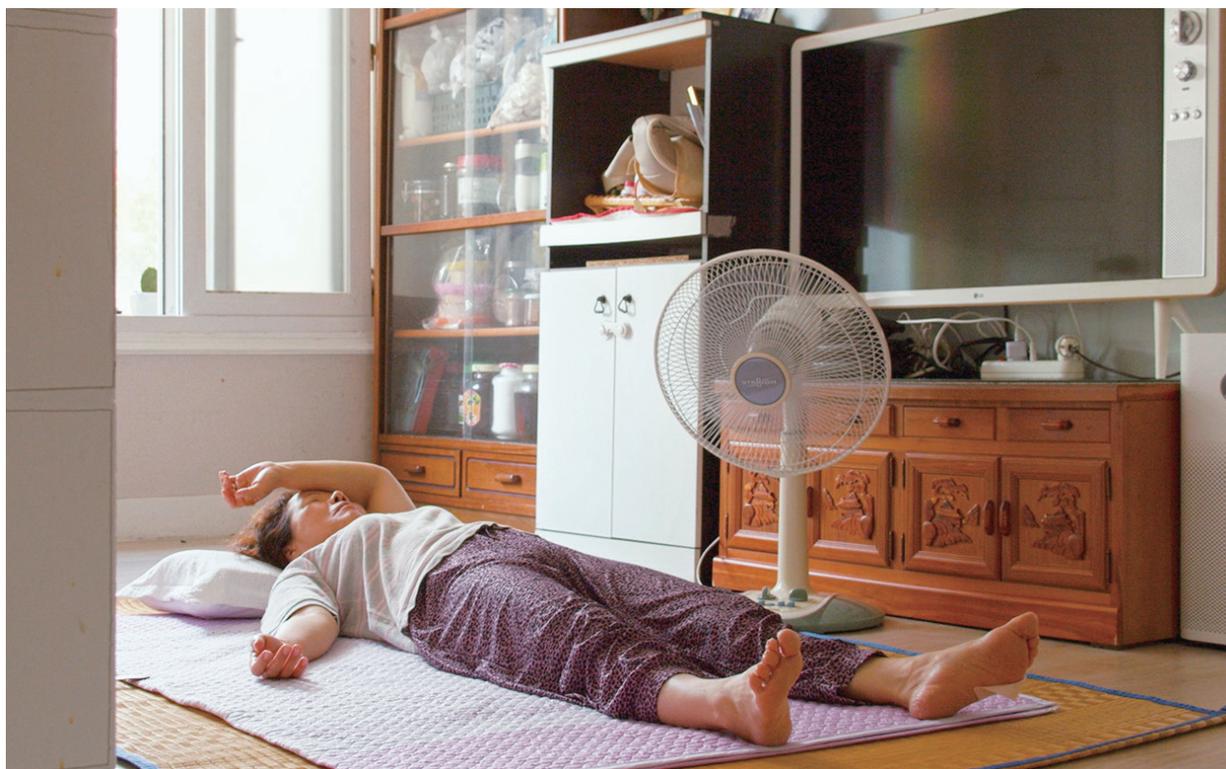
찾으면 찾을수록 명패는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 사이에 적지 않은 수가 사라졌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인 중구 일대에서는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재건축·재개발 물결에 휩쓸려 많은 수의 ‘뿔딩’과 그 명패가 자취를 감췄다. 대표 사례로 남대문로 5가에 있던 상가주택 중앙빌딩(1959년 준공)을 들 수 있다.(사진④) ‘中央뿔딩’이 적힌 명패가 참으로 인상적인 빌딩이었지만 2017년 중순 철거돼 그 자리에는 복합 오피스 빌딩인 그랜드센트럴(2020년 준공)이 들어섰다.

1950~1970년대에 지어진 빌딩 대부분은 세간에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면 남겨야 할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이 무렵에 세워진 빌딩에 대해서는 보존은 고사하고 자세한 기록조차 남기기 어렵다. 우리가 빌딩을 다양하게 부른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명패 또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건축주 혹은 사업자의 선의에 의해서만 남겨지는 상황이다. 서울의 도시 공간을 가득 채우던 이름 없는 주역인 오래된 ‘뿔딩’이 서울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게 더 많은 명패가 기록되고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 김영준 도쿄대학 공학계연구과 도시공학전공 박사 과정, 인스타그램 @서울의현대를찾아서 운영자

당신이라는 깃발을 보았습니다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





운동회가 열리면 운동장에 만국기가 걸렸다. 하늘을 가릴 만큼 빼곡하게 걸린 깃발들이 펼쳐져서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팔각팔각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사실 아무도 깃발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는 않았다. 깃발이란 원래 펼쳐이는 거라고 생각했다. 저러다 말겠지. 바람이 그치면 축 늘어지겠지. 그냥 그런 거라고, 그냥 저러다 마는 거라고. 하지만 아랑곳없이 유난히 혼자, 바람이 불건 말건 더 팔딱팔딱, '나'를 좀 봐달라고, '나'는 살아 있다고, '나'는 멈추지 않는다고, 외치듯 흔들리는 깃발도 있던 것 같다.

‘나’ 라는 인권을 위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오복(정애화)의 큰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눈치 없는 남편과 철없는 막내딸은 그녀에게 늘 걱정을 안겨준다. 그러다 시장 상인회에서 술을 먹은 날, 험한 일이 벌어졌다. 오복은 상처받고 싸우려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녀 편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말한다. 한강에 배 한 번 지나간 거라고, 젊은 사람 발목 잡지 말고 가만 있으라고. 하지만 오복은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가만있지 않겠노라 다짐한다.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는 60대 여성의 성폭행 사건 이후를 그리는 영화다. 상당히 논쟁적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감독과 배우 모두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누구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누구도 주인공보다 앞서 화를 내거나, 동정하거나 포악질하는 법이 없다. 김미조 감독은 주인공이 극악한 상황에 처한 '사건'을 앞서 바라보지 않고, 사건의 파도에 휩쓸린 그 '사람'을 먼저 살핀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엄마라는 역할, 어찌면 집안의 실질적 가장으로서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오복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망설이는 사람들의 이기심도, 함께 맞서 격렬하게 싸워주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의 현재도 오복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는 사실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평생 '내' 목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는 한 중년 여성이 드디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순간, 그 무기력함과 망설임도 묵묵히 인정하면서 결국 '나' 라는 인권을 발견하는 순간을 응원한다.

‘나’ 라는 존엄을 위해

<갈매기>는 플래시백 없이 오직 오복의 현재만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이, 그날의 기억이, 오복을 상대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응하는 오복의 자존감이 현재의 오복을 만들었다는 것을 굳이 힘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힘주지 않은 연출이 오복의 변화만은 꼭꼭 눌러 쓴다. 그래서 오복의 인생 페이지의 뒷장에도, 관객들의 마음에도 짙은 자국이 남는다.

힘센 두 날개를 가졌지만, 계속 물에서 어슬렁거리는 갈매기처럼 오복은 자신만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다.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왔더니 여성으로서의 오복은 지워지고 없다. 그리고 비로소 여성, 그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딸에게 그날 일을 털어놓은 후, 옹기 내 찾아가던 경찰서 문은 그날따라 이유 없이 잠겨 있다. 오복이 맞아야 할 세상을 상징하는 장면 같다.

누군가는 선의를 가지고 오복을 도와주길 바라지만 '선의'라는 명사에 따르는 동사는 '베풀다'이다. 베풀다가 내포하는 것이 희생·포기·관용·옹기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선의를 요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복은 이제 '나'를 위한 선의를 베풀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세상도 사람도 가족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복은 바뀌었다. 누군가가 봐줄 때까지, '내'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펼쳐이기로 결정한 순간, 오복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결말이 너무나 단호해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야 말았다.

<갈매기>(2021)

감독 김미조

출연 정애화(오복 역), 이장유(무일 역),
고서희(인애 역), 김기빈(지애 역)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 박도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 사진 제공 (주)영화사 진진



거리예술 카라반

10. 16.(토) ~ 11. 7.(일) 매주 주말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숲공원, DDP,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서울로7017



Web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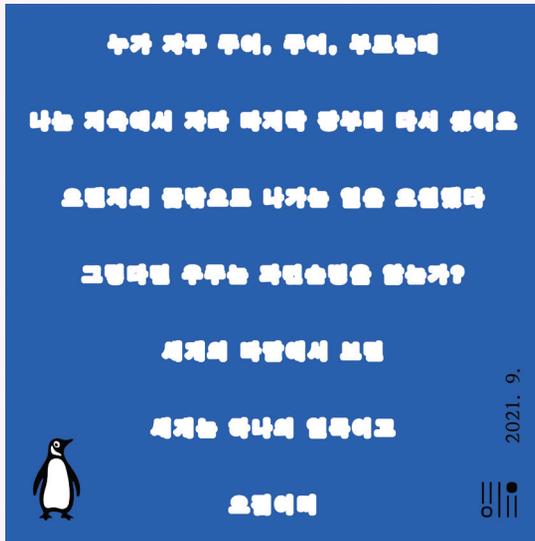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



엄마를 바라보는 엄마



웹진 [비유] 45호의 <쓰다> 포스터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괴상한 일인가. 어려서는 독서가 수상한 취미라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읽으면서 내내 즐겁지도 않고, 분명히 한글로 적혔는데도 독해하지 못할 때는 괴롭기도 하다. 하지만 즉각적인 기쁨을 보장하는 수많은 콘텐츠를 뒤로하고 나는 보통 책을 선택한다. 독서란 옷이 혼자 되는 일이다. 책은 이곳과 다른 저 바깥에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신, 나 홀로 존재하는 '지금-여기'를 잠시나마 긍정하게 만든다. 그게 약이 된다. 집중할 만한 좋은 글에 빠져 있으면 그런 아름다움을 알아보며 즐기는 내가 좋아진다. 소설 한 편, 시 몇 구절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때가 있다.

멋지게 읽어낼 자신이 없어서 리뷰로 시를 다루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오늘은 마음먹고 시를 소개해 보려 한다. 시 텍스트 위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얼굴이 완벽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그와 처음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를 아끼고 존경하게 됐다. 그와 나는 종종 선물을 주고받고 심지어 어디서 좋은 시를 읽으면 보여주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관계다. 그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의사다. 1kg도 안 되는 무게로 태어난 아기들을 밤낮으로 보살피는 일을 한다. 퇴근하면 천근만근인 몸을 씻고 늦은 시간까지 자신을 기다린 자식들 옆에 겨우 머리를 떨어뜨리지만, 병원에서 호출이 오면 다시 일터로 향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일상을 깎아내면서까지 살리려고 노력한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퇴원하지는 못한다.



그는 늘 자기 삶이 위태롭다고 느낀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좋은 시와 그를 나란히 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는 시를 읽으며,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 속에서 자기 마음을 찾으려는 사람이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느끼는 시인을 만나면 위로받는다 말했다. 그는 임승유 시인의 첫 시집을 좋아한다. 《아이를 낳았지 나 갖고는 부족할까 봐》에 적힌 시인의 말은 다음과 같다. “다음엔 내가 너의 아이로 태어날게.” 자기 삶 전체가 자신이 돌보는 아이의 표정과 몸짓으로 인해 때로는 앞으로 잘 나아가기도 하고 완전히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저 문장이 대체 어떤 감수성을 불러일으켰을지 내내 궁금했다. 얼마 전 임승유 시인의 다음 시를 보고 그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 시가 온통 그의 생활 같기만 했다. 달리 해석할 수 없어서 막막했지만 그래서 더 깊이, 더 오래 읽을 수밖에 없었다.

뒷문을 열고 나간 것까지는 기억해. 문득 정신 차려 보니 소철 나무 앞에 앉아 있더라고. 내가 아는 소철이었어. 키운 지는 몇 년 됐고. 시간이 좀더 지난 후에는 소철이 아니라 푸른 이끼로 뒤덮인 돌멩이라는 걸 알게 됐지. 생명력으로 가득한데다가 부드럽고 축축해서 손바닥으로 쓸어도 보고 고개 숙여 냄새를 맡기도 했어.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점점 건달 수가 없었어. 뭘 더해야 이 푸른 것 옆에 있게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고 이런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거의 울먹이는 심정이 됐을 때 멀리서부터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야. 새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옮겨 다니느라 온통 시끄러웠어. 여기서 뭐하세요? 아이 손을 잡고 서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었더라고. 지금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주변의 다른 생물이 그러하듯 저기 해가 비치는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지. 두 사람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건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끼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내가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겠어.

임승유 <소매가 긴 푸른 셔츠에 검정 바지> 전문

이 시를 그에게 보냈더니 한참 대답이 없다. 그는 시를 천천히 읽고 싶어서 급히 차를 몰아 한강 공원에 갔다고 한다. 출퇴근길 바라보던 한강 공원에 가보는 것이 며칠 전부터 버려던 일이라고 했다. 초저녁부터 유난히 밝았던 달 아래 쪼그려 앉아 시를 여러 번 읽었다고 했다. 그를 수시로 절망하게 하는 사건이 무엇이든, 그 절망감을 느끼며 쪼그려 앉아서도 그는 항상 ‘두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 아픈 아이와 아이의 엄마. 그래서 그는 한탄과 후회를 하며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두 사람’이 매번 그를 다시 일으키고 만다.

실제로 매일 병원에서, 그는 엄마와 그 엄마 손을 잡고 선 아이 모습에서 힘을 얻는다. “저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겠죠?”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그런 말들이 자기 등을 더 밀어달라는 문장으로 읽힌다. “계속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임승유의 시를 읽으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는지 나도 아주 조금은 짐작하게 됐다.

연극in

많은 독자·청자를 만나기 위한 석 달 과정

배리어프리 특집호 제작 일지

200호 기념으로 발행된 웹진 [연극in]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특집호는 약 9주간의 기간을 거쳐 제작됐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단계: 초기 계획 수립·음성 낭독 배우 모집

특집호에 실릴 원고 청탁서를 발송했다. 해당 원고는 “새로운 독자와의 만남을 위해, 기존 방식에 수어 통역(영상)·음성 녹음(배우 대독 음성)을 추가해 제작·발행”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다. 이에 대한 필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한 필자들에게 사진을 보지 않아도 장면이 이해될 수 있도록 “본문에 장면을 묘사하는 문단을 넣어주”기를 특별히 요청했다.

동시에 웹진의 공지 사항과 SNS 채널에 200호 음성 녹음 신청 안내 공고를 게재했다. 데뷔 5년 이내의 신인 배우가 모집 대상이었으며, 접수자가 예상보다 많아 기사별로 지정 성별 배우 두 사람의 음성을 넣었다. 청자들이 하나의 기사를 두 가지 톤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2단계: 음성 낭독 녹음, 수어 영상 촬영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특집호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웹진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검토해 제작 시 유의 사항 등을 확인했다. 음성 해설은 사진 등의 소스를 음성으로 해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음성 ‘해설’로 사용되던 용어를 수정했다. 그리고 웹진의 홈페이지 자체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취약점을 발견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영상 업로드 방식을 고려했다.

원고를 수합해 교정 작업 이후 배우들에게 전달했다. 녹음 과정에서 유의 사항을 함께 전달했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 조금의 사이를 갖고” “마이크를 정면에 두고, 원고는 사선으로 두어” “사람 이름, 낯선 단어, 공연 제목 등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또렷하게” 등의 기술적 사항과 더불어 “동료 배우를 존중” “피드백은 해당 배우가 원할 때만”과 같이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항을 포함했다.

음성 녹음을 진행했다. 한 기사당 두 명의 배우가 한 팀으로 구성, 두 편의 희곡을 포함한 아홉 팀의 녹음이 총 4일간 진행됐다. 음성 녹음본을 바탕으로 수어 통역 영상을 촬영했다. 세로 화면으로 구



웹진 [연극in] 200호 제작 일정

	3월				4월			5월	
	2주	3주	4주	5주 /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편집부	자문 회의		원고 청탁			원고수합및 편집/ 모니터링			발행
음성낭독		음성 낭독 신청자 모집		참여 배우 선정/ 사전 녹음	사전 미팅		음성 녹음	가편집	믹싱
수어통역							사전 회의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상해 수어 통역사의 표정을 포함해 손의 움직임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논의의 부재와 편집 시간의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3단계: 영상 편집·발행

믹싱 작업이 완료된 음성 파일과 수어 영상, 텍스트를 합쳐 영상 기사를 제작했다. 자막에 들어가야 할 정보(제목·필자·수어 통역사·음성 낭독자·원고 등)를 확인하고, 희곡의 경우 인물이 바뀌는 상황을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역의 이름을 다른 색으로 처리했다. 영상 기사가 완성된 후, 수어 통역사의 검수를 통해 음성과 수어의 타이밍을 맞추는 작업을 거쳤다.

웹진 화면 배치 역시 쉽지 않았다. 평소 기사보다 들어가야 할 정보가 많았으며, 영상·음성·텍스트 중 무엇을 어디에 어느 크기로 배치하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와 화면의 가독성이 크게 변화했다. 특히 웹진의 페이지는 사용자의 화면 크기에 따라 구성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였기에 더욱 많은 고민이 이어졌다.

우려와 달리 5월 13일에 맞춰 영상을 포함한 모든 기사가 무사히 발행됐으나, 이후에도 수정을 계속해 발행 후에도 몇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현재 웹진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영상 제작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음성 낭독·수어 통역 기사가 '특집'이 아니라, 매호 웹진에서 만날 수 있는 당연한 콘텐츠가 되리라 생각한다. 200호의 제작 과정에는 아쉬움이 많으나, 지속 가능하고 효율 높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었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더 많은 독자를 만나는 웹진을 상상해 본다.

글 **예준미** 글, 사진, 영상 뭐가 됐든 연극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춤·여기

본인을 한계 짓지 않고, 그저 즐기며 재밌게 추는 춤

이광석 무용가

❗ 당신은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현대무용 하는 이광석입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무용을 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무용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반대가 가장 힘들었죠. 그러다 자랑스러운 춤꾼이 되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마흔 즈음에 춤을 그만두고 술을 많이 마셨죠. 오랜 친구인 와이즈 발레단의 김길용 단장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다시 춤을 추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춤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헬스장과 연습실만 오가며 만든 작품이 <대한민국 NO.1 댄서 이광석_쿵바카>(2014)예요. 그런데 다시 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치매 증상이 심해졌을 땐, 춤을 거의 못 났죠. 그렇게 또다시 몇 년간 춤을 추지 못하다가, 최근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면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작업도 하고 춤도 추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orea International Accessible Dance Festival, 이하 KIADA) 홍보 영상 촬영차 이곳에 오게 됐어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의 역량 발전을 돕는 빛소리친구들이 주관하는 KIADA는 전 세계 장애인 무용 플랫폼을 지향하는 행사로, 일 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올해로 6회차를 맞이했어요. 저는 KIADA의 첫 회부터 참여했는데, 벌써 6년을 함께하고 있네요. 올해 선보일 작품은 <시지프스(Sisyphus)>예요. 장애를 지닌 몸과 그 몸 안에 있는 덩어리들, 즉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데 안 되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KIADA 외에도, 장애인을 주제로 한 수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행사들에 참여자이자 관객으로 수많은 장애 무용 공연을 만났습니다. 공연을 보다 보면, 첫째로 감동받고, 둘째로 슬퍼지고, 셋째로 즐거워져요. 그들 스스로 흥에 겨워 즐겁게 추는 게 객석에서 느껴지거든요. (웃음) 장애 무용 공연은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신나게 움직이며 본인의 즐거움을 마음껏 드러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저 역시 장애로 인해 위축되고 불행하다 느끼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춤을 추고, 춤과 함께했기에,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들 것이고,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본인을 한계 짓지 않고, 그저 즐기면서 재밌게 춤을 쳤으면 합니다.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이광석은 무용의 대중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댄스컴퍼니 미디어우스'를 설립했다. "삶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제시하고, 그것에 수반된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장르를 초월한 손짓과 몸짓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진 [춤·in]



2021
Calendar

10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Mon	Tue	Wed
4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트리니티 모차르트 이펙트> ● 공연 <이송희 첼로 독주회> ● 연극 <냉면이 먹고 싶어서>(~10. 10) ● 연극 <행복한 칠월>(~10. 10) ● 연극 <태양>(~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임동민, 임동혁, 디토 오케스트라>
1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이채영 피아노 독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후지시로 세이지, 빛과 그림자 판타지>(~10. 12) ● 공연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 연극 <순님>(~10. 17) ● 연극 <열어놓아 어른>(~10. 24) ● 공연 <수림뉴웨이브 2021>(~10. 14) ●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0. 31) ● 전시 <This is smart cutters>(~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눈감고 돌아서면 그만>(~10. 17) ● 연극 <두만이 태만이>(~10. 24) ● 연극 <제6회 단단페스티벌>(~11. 14) ● 연극 <싸인>(~10. 17) ● 공연 <이상주의 누에보 탱고> ● 공연 <조정민 더블베이스 독주회> ● 공연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오작교 프로젝트> ● 2021 금천예술공장 12기 오픈스튜디오(~10. 16)
18	1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하늬바람>(~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루돌프 부흐빈더 & 베토벤>(~10. 20) ● 공연 <사계 2050>
25	2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우리 동네 동선동>(~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깊은 숲속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이정선 피아노 독주회> ● 연극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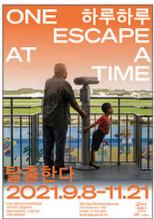
Thu	Fri	Sat	Sun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손얼음 피아노 리사이틀>(~10. 1) ● 공연 <이보경 바이올린 독주회> ● 전시 <We built this City, 우리가 만든 도시>(~10. 24) ● 전시 <아폴론의 화살>(~10. 30) ● 무용 <발레 스페셜 갈라>(~10. 2) ● 연극 <산을 옮기는 사람들>(~10. 10) ● 공연 <보헤미안랩소디 with 오케스트라>(~10. 4) ● 2021 문학캠페인 <문학에 물들다>(~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심청>(~10. 2) ● 공연 <임흥균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피아노 듀오 신박 리사이틀> ● 연극 <내일을 내일에게>(~10. 11) ● 공연 <오선지 걸어가는 작곡가>(~10. 10) ● 연극 <엔톡 라이브-폴리스>(~10. 7) ● 연극 <엔톡 라이브-시라노 드베르주라크>(~10. 6) ● 공연 <가야금 LAB 오드리-Sound of GMG 상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10. 3) ●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10. 3) ● 뮤지컬 <쓰릴 미>(~10. 3) ● 뮤지컬 <아르토, 고흐>(~10. 3) ● 연극 <물고양이>(~10. 3) ● 연극 <달콤한 노래>(~10. 3) ● 연극 <러브 송>(~10. 3) ● 연극 <홀아비형제>(~10. 3) ● 연극 <외출>(~10. 3) ● 연극 <오이디푸스 온 더 튜브>(~10. 3) ● 뮤지컬 <다윈 영의 약의 기원>(~10. 17) ● 2021 문학캠페인 <작가의 방: 신용목 시인>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정민성, 박기훈 콘서트> ● 공연 <누리 콜렉티브-텔레마니아> ● 뮤지컬 <페페의 꿈>(~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영화속 음악: 아마데우스> ● 무용 <궁 밖의 무희 락콘서트 신축년 진연의 정재-김꽃지> ● 연극 <오이디푸스>(~10. 9) ● 뮤지컬 <아일랜드>(~10. 31) ●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11. 21) ● 연극 <안녕하시게>(~10. 10) ● 공연 <세븐 씩>(~10. 17) ●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김혜진 피아노 독주회> ● 무용 <여우와 돌고래>(~10. 10) ● 연극 <스카팡의 간계>(~10. 15) ● 뮤지컬 <어린왕자>(~10. 24) ● 연극 <작은 아씨들>(~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벚꽃 피는 집>(~10. 10) ● 연극 <블랙코메디>(~10. 10) ● 연극 <칠수와 만수루>(~10. 10) ● 2021 문학캠페인 <작가의 방: 이희영 소설가>
14	15	1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틀란도 빌라존 & 자비에르 드매스트르> ● 전시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PAREIDOLIA>(~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김소라 랜스케이프> ● 공연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10. 17) ● 공연 <김재영 바이올린 리사이틀> ● 공연 <기타리스트 박지형 독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한혜진 플루트 독주회> ● 공연 <쇼팽, 뮤지컬과 만나다> ● 공연 <양윤희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서울숲 재즈페스티벌 2021>(~10. 17) ● 2021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카라반>(~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서울테러>(~10. 17) ● 공연 <조가람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세상의 모든 녹턴> ● 2021 문학캠페인 <작가의 방: 광재식 소설가>
21	22	2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나태주와 함께하는 신세계판타지> ● 연극 <줄리엣과 줄리엣>(~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와 엘가의 첼로 협주곡> ● 공연 <강지혜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안주희 피아노 독주회> ● 무용 <와이즈발레단 바이타>(~10. 23) ● 무용 <이것은 유희가 아니다>(~10. 24) ● 뮤지컬 <배비장전>(~10. 31) ● 뮤지컬 <소춘대유희_백년광대>(~11. 7) ● 공연 <몸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10. 24) ● 축제 <같이만남: 함께 예술하기>(~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양손프로젝트 단편선 레파토리>(~10. 23) ● 공연 <장승호 기타 리사이틀> ● 공연 <2021 서울국제음악제 개막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창업>(~10. 24) ● 2021 문학캠페인 <작가의 방: 한강 소설가>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유니버설발레단 지젤>(~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사랑했어요>(~10. 30) ● 뮤지컬 <어린이 캣> ● 공연 <윤병화 피아노 독주회> ● 연극 <리어왕>(~11. 21) ● 공연 <이경미 첼로 독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메리 셸리>(~10. 31) ● 공연 <다운워크팩토리-문래 라이브 코딩 컴퍼티션> ● 2021 문학캠페인 <작가의 방: 유계영 시인>



이소선 10주기 특별기획전 <목소리>

아들 전태일의 뜻을 이어 노동자 곁에서 '평등'과 '인간 존중'을 외친 이소선을 기억하는 열다섯 명의 증언과 사료, 그리고 지금 노동 현장을 이야기한다. 신민·오민수 작가의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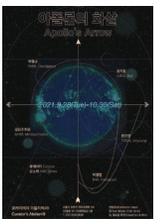
일시 8월 31일(화)~2022년 5월 2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월 휴관) | 장소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꿈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18-0904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미디어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시대 풍경을 미술로 그려내는 국제예술축제이다. <하루하루 탈출한다>는 도피주의, 특히 오늘날 대중 미디어 흐름과 관계있는 도피주의에서 착안했다.

일시 9월 8일(수)~11월 21일(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6시(월 휴관)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124-8800



전시 <아폴론의 화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전시는 김민주초원·박형근·박형렬·윤진영·정지필의 사진 작품 30여 점으로 구성된다.

일시 9월 28일(화)~10월 30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월·일 휴관) | 장소 Curator's Atelier49 | 관람료 무료 | 문의 070-7629-0629



2021 문학캠페인 <문학에 물들다>

서울문화재단과 TBS 라디오가 연계한 문학캠페인 <문학에 물들다>는 문학 가치 확산 및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위드코로나 시대에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문학캠페인: 문학에 물들다

일시 9월 27일(월)~10월 29일(금) 평일 오전 11시 54분 | 장소 TBS FM 95.1MHz | 내용 작품 낭독 후 작품 배경 및 희망 메시지 전달 | 문의 02-324-4622

작가와의 만남: 작가의 방

일시 10월 3일(일)~31일(일) 매주 일요일 오전 9시~10시 | 장소 TBS FM 95.1MHz '오늘도 읽음-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특집' | 내용 작가 소개, 작품 낭독, 인터뷰 및 라이브 연주 등의 미니 북콘서트 | 문의 02-324-4622



연극 <산을 옮기는 사람들>

실제 히말라야 송신탑 설치 사건을 배경으로 중국과 네팔의 히말라야 국경지대 마을에서 발생한 갈등 이야기를 담았다. 자연과 인간, 보존과 개발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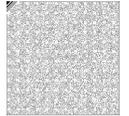
일시 10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월 휴관) | 장소 선돌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70-7913-9071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공연 <가야금LAB오드리-Sound of GMG 상영회>

개량 가야금 '쌍현금' '아랫금' '아래윗금'으로 이뤄진 앙상블을 비롯해 기존 2현 가야금과 어우러지는 독보적 소리의 조화를 담은 상영회가 열린다.

일시 10월 2일(토) 오후 4시 |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4300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서울국제작가축제는 2006년부터 개최한 글로벌 문학 축제이다. 국내 독자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이 서울을 무대로 쌍방향 교류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일시 10월 8일(금)~24일(일) | 누리집 siwf.or.kr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24-4622



연극 <세븐 씬>

예측하지 못한 삶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출산·투병·이혼 등 어느새 마주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연극이다.

일시 10월 8일(금)~17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월 휴관) |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 관람료 전석 3만 원 | 문의 010-5629-9180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연극 <버려진 그들의 이야기 - 안녕하시개>

연극 <안녕하시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개들의 사실적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며 자연과 우리를 둘러싼 생태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일시 10월 8일(금)~10일(일) 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5시, 일 오후 3시 |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 문의 02-2676-4300



2021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ON & OFF>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4일간의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개별 스튜디오를 개방하는 <예술가의 방>과 일상 기록 프로젝트 전시 <Life Logging: 라이프로그>이 진행된다.

일시 10월 13일(수)~16일(토) 오후 1시~9시(사전 예약 후 2시간 단위 입장) | 장소 금천예술공장 | 관람료 무료 | 문의 02-807-4800



우리음악 축제 <수림뉴웨이브 2021>

한국 전통음악 아티스트를 발굴·지원하고 전통 기반 창작음악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공연이다. 2021년에는 강지은·김보라·방지원·송지윤·윤은화 5인의 창의적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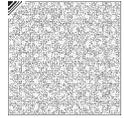
일시 10월 12일(화)~14일(목) | 장소 유튜브 '수림뉴웨이브' | 관람료 무료 | 문의 070-7537-1578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전시 이해런 <This is smart cutters>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고안한 도구를 제안한다. 효율이 곧 스마트함을 말하는 동시대, 최대 노동의 최소 효과를 지닌 도구를 선보이며 도구 발전의 알맞은 균형점을 제시한다.

일시 10월 12일(화)~26일(화) 오전 11시~오후 8시(월 휴관) | 장소 문래예술공장 갤러리M30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4300



국악 <김소라 LANDSCAPE>

타악기 연주자 김소라는 장구 하나로 '한국 장단의 세계화'를 목표하고 있다. 7개국 24 도시로 단독 월드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장구와 피리·생황·태평소로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일시 10월 15일(금)~16일(토)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관람료 3만 5천 원 | 문의 1544-5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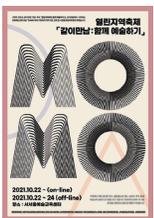


2021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거리예술 카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는 거리에 서커스 예술 공연이 찾아간다.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예술 경험을 더해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일시 10월 16일(토)~11월 7일(일) 매주 주말 | 장소 DDP·서울로 7017·평화문화단지·선유도공원·서서울호수공원·서울숲 | 상세 내용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누리집-공간소식 게시판 참고 | 문의 02-3437-6452



열린지역축제 <같이만남: 함께 예술하기>

강서구·양천구 시민이 직접 기획한 전시다. 청소년 댄스, 낭독극, 연극, 예술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VR 기반 3D 영상 방식으로 감상·체험이 가능하다.

일시 10월 22일(금)~24일(일) |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97-0016



반포심산아트홀 렉처콘서트

<미리 만나는 클래식 스타>

국내 음악 저널 공모전의 최고상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실력을 검증받은 미래의 클래식 스타, 김정아·김주선·손지우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10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연극 <강아지똥>

참새·흙덩이·닭 모두 "더러워! 넌 쓸모없어!"라며 강아지똥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난 고작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강아지똥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일시 10월 30일(토) 오전 11시, 오후 3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029-1721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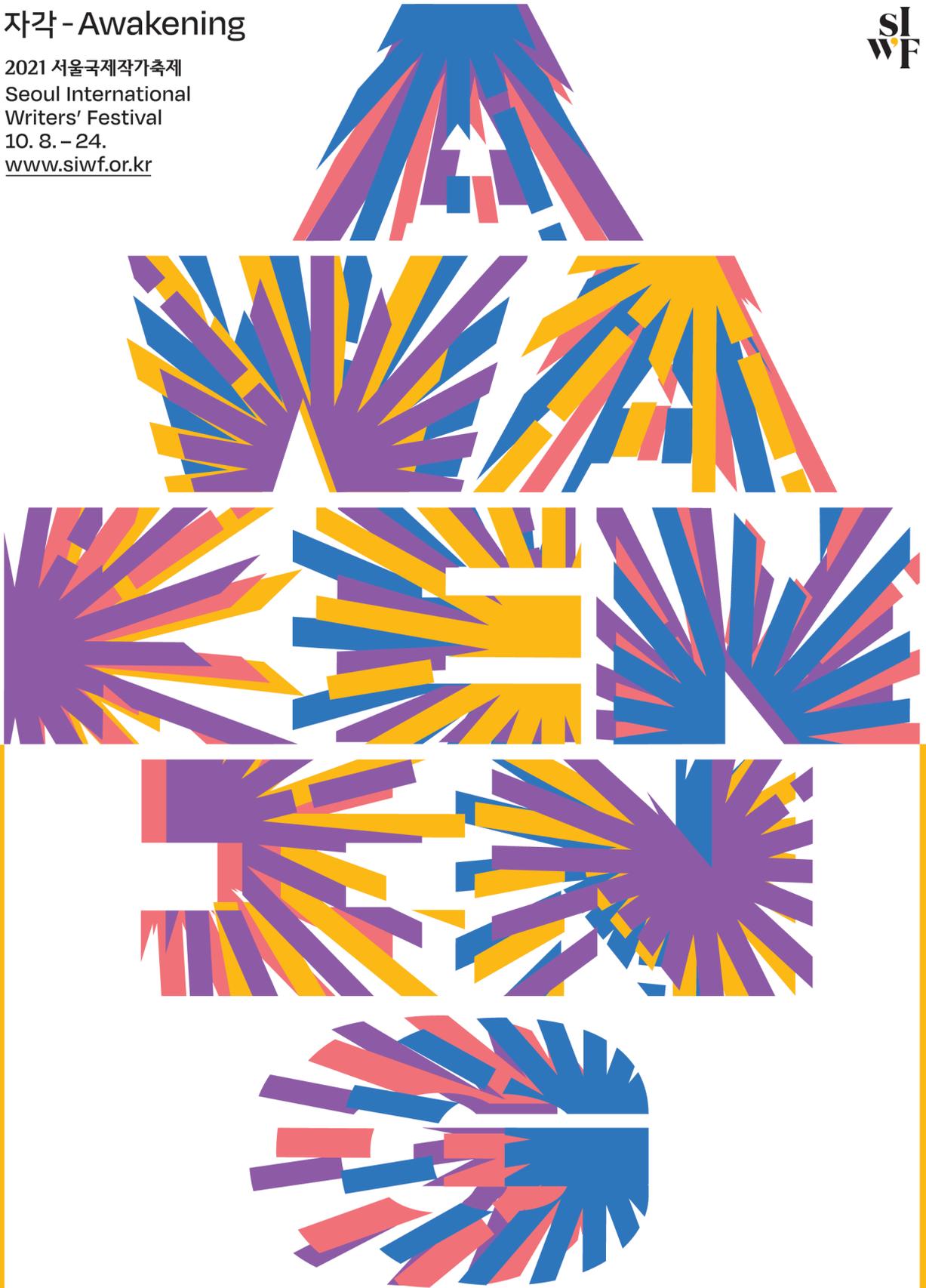
<다운퀴크팩토리-문래 라이브 코딩 컴페티션>

각자의 배경을 가진 채 살아온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코딩 공연을 선보인다. 다양한 오디오와 화려한 시각적 패턴의 향연이 펼쳐진다.

일시 10월 31일(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문래예술공장 갤러리 M30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4300

자각 - Awakening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10. 8. - 24.
www.siwf.or.kr



한국문화재단

세종·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디자인재단



Incheon Airport
인천국제공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대학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종량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접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대구광역예술교육지원센터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나를 변화시킬 돌봄과 예술교육

저출산이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돌봄이 대안으로 안ظار이 늘고 있는 분위기에서 돌봄과 예술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별안 아니라 VR에 대한 기사나 NFT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예술의 영역으로 포함해 다루려는 기사들이 좋았다.
앞으로 이 같은 기사들이 많아져서 좀 더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민희수 님(대구광역시 중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

저출산이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분위기에 맞춰

예술과 돌봄의 영역을 통합해 바라보는 시각이 신선하고 좋았다.

뿐만 아니라 VR에 대한 기사나 NFT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예술의 영역으로 포함해 다루려는 기사들이 좋았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앞으로 이 같은 기사들이 많아져서 좀 더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편집 후기

가을입니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매해 돌아오는 가을을 매번 진심을 다해 예찬합니다.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가을이라서 얼마나 좋을까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내가 사랑하는 찰나의 계절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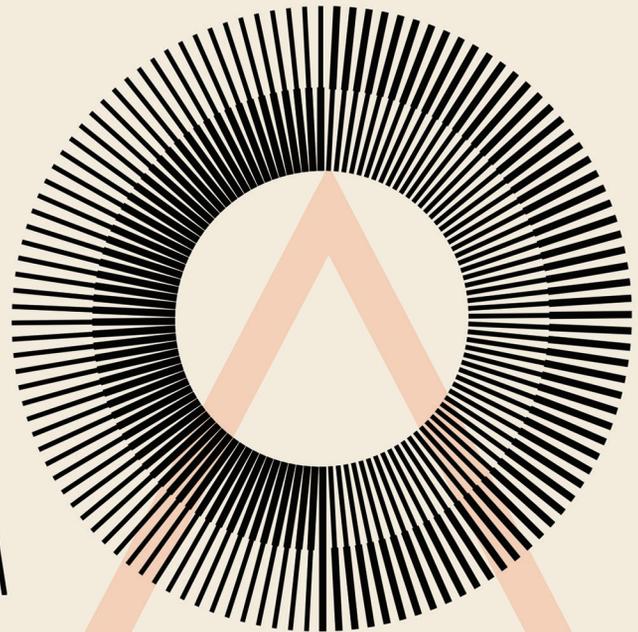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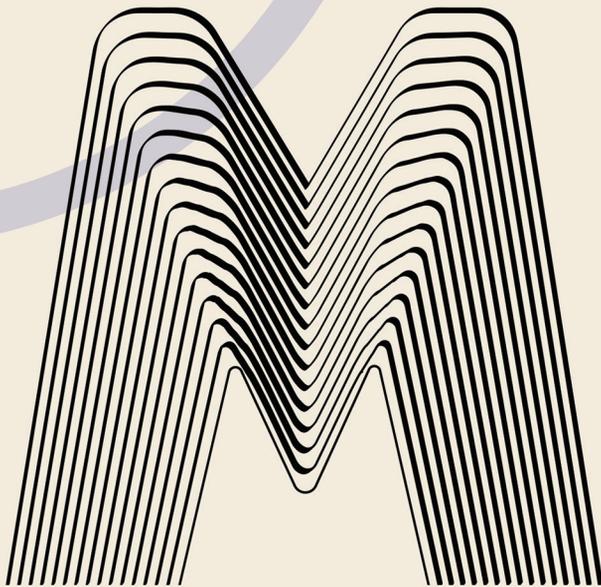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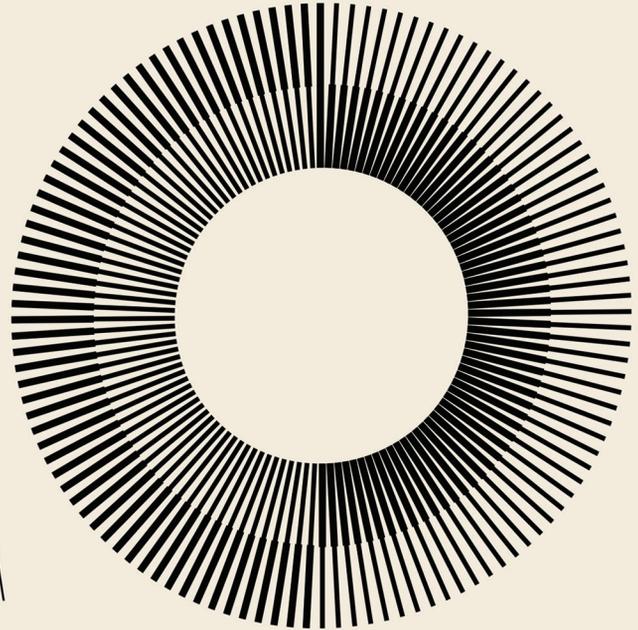
추석이 지나서 가을입니다. 벌써 시월입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별은 좋고 읽고 싶은 소설이 쌓이는 계절입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9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3개월은 느긋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장영수 객원 기자

지역이 만드는 강서·양천 연합 축제 ‘열린지역축제·함께 예술하기’는 강서/양천에서 시작하는 문화예술 같이 만남 ‘MoMo’에서 기획하고 지역 기관, 단체 등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하였습니다.

열린지역축제 「같이만남:함께 예술하기」



2021.10.22 ~ (on-line)

2021.10.22 ~ 24 (off-line)

장소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지역에서 직접 준비한 전시, 공연(청소년 댄스, 낭독극, 연극 등)과 예술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R 기반 3D 영상 콘텐츠로 감상 및 체험이 가능합니다.



강정은 <Ritual Objet_Vase+Clear>
유리 | 190×190mm | 2019